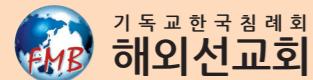


Vol.82 2022.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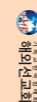
특집 : FMB VISION 2030 선포대회
FMB, SRDC, WMTC 선교저널

FMB Missio Dei
Foreign Mission Board of the Korea Baptist Convention

Missio Dei Vol.82 2022.06



• 발행인 | 주민호 • 발행처 | 침례교해외선교회(FMB) • 발행일 2022년 6월 15일 • 홈페이지 www.fmb.or.kr
• 주 소 |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번길 10,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빌딩 12층
• 연락처 | Tel. 02-2619-2202-4 Fax. 02-2619-8797 E-mail. fmbkorea@fmb.or.kr



- + Missio Dei는 라틴어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 + Missio Dei는 FMB와 FMB 산하기관인 SRDC, WMTC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통합 선교 저널입니다
- + 침례교해외선교회(Foreign Mission Board of the Korea Baptist Convention, FMB)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당대에 주님이 다시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미전도 종족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 교회를 세움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게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Contents



- 제목 :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 Photographer : 박철호 선교사(일본)

Missio Dei 표지를 장식할 생생한 선교 현장 사진을 보내주세요.(인물, 풍경, 사역 등)


• 파일명을 '이름-사진제목'으로 변환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MB Missio Dei

머리글	03
특집 : VISION 2030 선포대회	04
국내 장기 체류 선교사의 현황과 개선을 위한 제안	12
만성 재정 부족 선교사들을 위한 모금 대책	26
4차 산업 혁명과 코로나 시대의 선교	36
IT 기술을 활용한 선교 방안	43
선교사 이야기	58
훈련 소감문	68
훈련생 소개 및 기도제목	74
사진으로 보는 훈련이야기	78
사진으로 보는 MK이야기	80
도서 소개	82
기관별 사역 일정(FMB, SRDC, WMTC)	84


침례교해외선교회, 선교전략연구개발원, 세계선교훈련원은 지역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서로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실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선교, 행복한 동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10장 13-15절)



선교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던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겸손하게 수종 들어야 합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던지, 이곳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각자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기도로 동역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혼자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보내는 자가 없이는 가는 자도 없습니다.

지금 바로, 행복한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FMB, SRDC, WMTC는 재정이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행복한 동행 - 후원의 종류

- 재정후원 : 각 기관들의 사역을 위한 일반 후원과 선교사들을 위한 특별 헌금
- 중보기도 : 분기별로 소식지를 활용하여 기관들과 선교사들을 기도로 지원
- 재능기부 : 기타 행정 지원 및 MK 교육, 돌봄지원

📍 행복한 동행 - 재정후원방법

- 각 단체별 후원 계좌를 통해 직접 일시 후원, 정기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침례교해외선교회 : 256-890033-76504 (하나은행,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
- 선교전략연구개발원 : 990-007953-940 (하나은행, 기독교한(선교전략))
- 세계선교훈련원 : 461301-04-598321 (국민은행, 세계선교훈련원)

만민을 위하여 기치(旗幟)를 들라

이병문 선교사 (WMTC 부원장)

- 짧은 머리말을 준비하면서 굳이 마감 시간까지 몰린 것은 Vision 2030 선포대회를 보고 나서 쓰기를 원해서였다. 선포식의 생생한 감동을 표현하는 것이 다른 어떤 글보다 값지다고 보기 때문이다.
- 2022년 5월 31일 오후 4시, 2시간 동안 진행된 'FMB Vision 2030 선포대회'는 대형 서사극 공연을 보는 것과 같은 감동이 있었다. 특징이라면 선교의 주인이신 주님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올려진 선포라는 점이다. "주님 저희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르심을 위해 다시 달려가겠습니다."
- 특히 44명의 선교사가 깃발을 향해 들어가는 장면에서 감동의 전율을 느꼈다. 그 깃발에는 선교사들의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있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이 30년 전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행진했던 바로 그 깃발이다.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 깃발을 잡은 선교사들에게서 이런 고백을 읽을 수 있었다. "주님께서 주신 깃발을 들고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록 달려오면서 다리가 찢기고, 이마가 깨지고, 머리에 흰 꽃이 피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 이상하게 요즘은 그런 깃발 행진을 보기 어렵다. 식상해졌을까? 혹시 더이상 깃발을 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직 깃발을 내려놓을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부르심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치워야 할 장애물이 많고, 내부적인 연약함을 보완해야 하며, 달려가야 할 길이 남았다. 이때 2030 비전의 선포를 통해 깃발을 다시 들고 "함께 가자!"라고 선포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가 생각난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사야 62:10) 이사야 선지자와 모든 복음의 선배들에 이어서 우리가 그 기치를 들고 온 세상을 향해 다시 달려갈 것이다. 할렐루야!



“침례교회는 열방으로 열방은 주께로!”

함께 하는 FMB

FMB Vision 2030 선포대회 - 함께 하는 선교

침례교 해외선교회(이하 FMB)는 지난 5월 31일 경기도 판교의 더크로스처치에서 FMB Vision 2030 선포대회를 개최하여 국내 체류 중인 선교사와 해외 선교사, 지역교회 선교목사와 FMB 이사진 등이 현장과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였다. 이 비전선포대회는 FMB가 2030년까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사였다.

2021년 6월부터 각 국가에서 선발된 50여 명의 선교사로 구성된 준비 위원들이 지부 회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비전 2030의 틀을 만들고, 2022년 1월 한 달 동안 준비위에서 선임한 4명의 선교사들이 최종안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3월 정기 이사회에서 최종안이 통과됨으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다양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수립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그 동안 전략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각 분야별 다양한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되어 왔으며, FMB는 이를 위해 적절한 선교전략을 찾기 위해 현지의 선교사와 한국의 지역교회들과 지속적인 논의와 고민을 해왔다. 이렇게 마련된 FMB Vision 2030은 “급변하는 선교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함께하는 선교’의 핵심가치가 반영된 사역구조와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2030년까지 함께 약속한 세계선교의 최종과업을 달성한다.”는 목적하에 ‘공동체 정신(Communitas Spirit)’, ‘지속적 성장(Sustainable Growth)’, ‘소통과 협력(Communication and Cooperation)’이라는 핵심가치를 담고 있다.

‘함께하는 선교’라는 표어와 함께 마련된 이번 비전선포대회는 그 타이틀처럼 FMB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간’ 시간이었다. 한국 침례교회 중에서 선교적으로 모범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 중 하나인 더크로스처치에서 장소 제공 및 진행의 세

세한 부분들을 담당해 주었다. 국명호 이사(여의도 침례교회)의 기도로 시작된 선포대회 1부 순서는 김종식 이사장(포항중앙침례교회)의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라는 설교를 통하여 기록하고 준비된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지속적인 선교 진행의 원동력을 강조되었다. 이어서 FMB 1대 회장을 역임한 유병기 목사(성광침례교회 원로목사)의 축도로 마무리 되었다.

‘비전 2030 영상’을 시작으로 진행된 2부 순서는 장인식 선교사(태국)와 민숙경 팀장(FMB 본부)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FMB 주민호 회장의 비전 설명에 대하여 김종식 이사장(포항중앙침례교회), 이영은 이사(아름다운교회), 박호중 이사(더크로스처치), 송희진 이사(찬송교회)의 분야별 이루어야 할 목표와 방향에 대한 제안과 조언이 이어졌다. 특히 현장에 참석할 수 없는 해외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은 온라인 화상채팅을 통해 함께하였는데, 이들의 모습이 비전선포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무대 위의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비춰져서 마치 한 공간 안에 함께 있는 듯 하였다. 현장에 참석한 다양한 나라의 선교사들이 각 나라의 국기를 들고 입장할 때 참석자 모두는 뜨거운 박수로 호응하였으며, 이어진 비전선포에서는 현장의 모든 선교사들과 참석자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선교사들까지 믿음을 담은 목소리로 사회자를 따라 비전 선언문을 큰 소리로 외쳤다. 비전이 선포된 후 각 분야별로 선포기도가 이어졌는데, ‘함께 하는 선교’는 이영은 이사(아름다운교회), ‘최종과업’에 대하여는 손석원 이사(샘깊은 교회), ‘선교전략’은 김용혁 이사(노은 교회), ‘동원’에는 김일엽 총무(총회), ‘역량강화’에는 백순실 총무(전여회), ‘핵심가치’에는 김종성 이사(부산교회)의 기도가





드러졌다. 은혜롭고 아름다운 축가에 이어 김종포 목사(아름다운 교회 원로목사), 이재경 2대 회장, 송상호 대표의 진심 어린 축사와 격려로 대회는 계속되었으며 김종식 이사장의 폐회 기도로 비전 2030의 진행 순서는 마무리 되었다. 그 외에도 최성은 목사(FMB이사, 지구촌교회), 성광교회 김재홍 선교목사, 늘사랑 교회 차진승 선교목사, WMTC 이병문 부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후에 진행된 만찬은 더크로스처치에서 선교사들과 내빈을 사랑하고 섬기는 차원에서 모든 재정을 지원하였다. 풍성한 식탁으로 이어진 식사 시간은 선교사들간의 교제와 내빈들 간의 대화로 채워졌으며, 향후 FMB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또 하나의 작은 비전선포대회가 되었다.



FMB VISION 2030 선포문

하나, 우리는 급변하는 선교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함께하는 선교’의 구조와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하나, 우리는 선교현장에 5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효율적 위기관리를 위한 다수의 전문 디브리퍼를 양성하며, 200유닛의 현지인 선교사와 400유닛의 새로운 선교사를 파송한다.

하나, 우리는 현장 중심의 체제를 확고히 하며 팀 사역을 활성화하고, 다음세대, 통일 선교, 디아스포라 선교역량을 전문화하는 다양한 선교 전략을 확립한다.

하나, 우리는 침례교회의 50% 이상이 해외 선교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지방회와 총회 기관들과 적극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선교회 본부의 역량과 리더십을 활성화하고, 선교사들의 자발적 책무 이행을 통하여 선교역량을 강화한다.

하나, 우리의 핵심 가치는 공동체 정신(Communitas Spirit),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소통과 협력(Communication and Cooperation)이다.

FMB VISION 2030

I. 목적

급변하는 선교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함께하는 선교”의 핵심가치가 반영된 사역 구조와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2030년까지 함께 약속한 세계선교의 최종과업을 달성한다.

II. 표어

(지역교회와 현장 선교사 그리고 FMB 본부가) 함께하는 선교

III. 핵심가치

1. 공동체 정신 Communitas Spirit

선교회 본부와 현장 선교사와 지역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본받아 하나 되어 사역하는 FMB

2. 지속적 성장 Sustainable Growth

지역 교회들이 협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공헌하도록 안내하고 도우며 선교사들이 필요한 돌봄과 단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리더십을 계발하도록 돕는 FMB

3. 소통과 협력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선교사들이 지역적인 사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체적인 사역 비전 성취를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FMB

IV. 최종 과업

1. 선교현지 500개의 새로운 교회 개척, 위기관리 디브리퍼 200명 양성
2. 600유닛의 새로운 선교사 파송(일반 100, 인턴 및 황금기 300, 현지인 200)
3. 침례교회 50% 선교 동참, 1억 챔피언교회 12개, 20,000 FMB Family

V. 중점 과제

1. 현장 선교사 관련 중점과제

- 선교현지 500개의 새로운 교회 개척
- 100유닛 현지인 선교사 파송
- 국내 디아스포라 사역 100유닛 현지인 선교사 역파송
- 현장 선교사 위기관리 디브리퍼 200명 양성

1) 현장중심 체제 수립 및 권역선교회 설치

- (1) 지부 조직과 지부장 역할 강화
- (2) 단계적 리더십 훈련 제공을 통한 권역 선교회 설치
- (3) 본부에 집중된 선교 행정, 선교사 돌봄 및 사역 조정 등의 역할의 단계적 위임
- (4) 선교사 돌봄 체계 강화, 현장사역 지도, 디브리핑 및 멘토링 구조 확립
- (5) 현장 위기관리 디브리퍼 200명 양성

2) 팀 사역 중심과 현지 교회와 협력

- (1) 새로운 교회 개척과 다양한 사역 과제를 위한 의도적 팀 구성 격려
- (2) 현지 교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이루어 선교지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사역 추진
- (3) 현지 지역교회 및 지도자들과 함께 선교현지에 새로운 500개 교회 개척
- (4) 현지인 동역자들의 세계선교 참여 체계와 방법마련, 100유닛 현지인 선교사 파송

3) 디아스포라 선교 역량 강화 및 전문화

- (1) 전세계에 흩어진 난민 대상 사역의 다양한 네트워크 참여 및 개발
- (2) 국내 이주민 대상 사역을 위한 지역교회 현황 파악 및 지원과 협력 방안 강구
- (3) 디아스포라 한인침례교회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
- (4) 국내 이주민 디아스포라 그룹 사역을 위한 현지인 선교사 100유닛 역파송

4) 선교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선교 전략 추구(4차산업혁명, IT)

- (1) 선교지의 거점 지역에 IT 및 미디어 센터 설립
- (2) 본부 FMB 스튜디오와 협력하여 다양한 비대면 사역 콘텐츠 개발

2. 지역교회 관련 중점과제

- 신임 선교사 400유닛 파송(일반 100, 인턴 및 황금기 300)
- 침례교회 50% 선교 동참
- 2만 FMB 패밀리 멤버 확보
- 1억원 챔피언 교회 12개 확보

1) 지역교회의 선교 참여 극대화

- (1) 신임 선교사 400유닛 파송(일반 100, 인턴 및 황금기 300)
- (2) 지역 교회의 선교축제, 선교세미나, 선교교육 등의 선교적 지원 강화
- (3) 국내(해외 한인) 침례교회들의 50% 선교 동참 방안 수립 및 실행(현재 20%)
- (4) 개인 2만명이 1구좌씩 후원하는 20000 FMB 패밀리 모집
- (5) 년 1억 헌금하는 “1억원 챔피언교회” 12개 확보

2) 지방회와 선교사 연결 프로그램 강화

- (1) 120개 지방회 중 년 5개 지방회 선교참여 방안 모색
- (2) 지방회와 선교사 매칭 시스템 도입
- (3) 지방회 별 선교세미나, 선교 포럼 활성화

3) 파송교회 세분화와 역할 증대

- (1) 파송교회를 제1, 제2, 제3 파송교회(협력파송)로 나누고, 파송교회 역할 세분화
- (2) ‘파송교회 목회자 협의회’ 신설

3. 선교회 본부 관련 중점 과제

- FMB 리더십 구조 확대 및 활성화
- 다음세대 선교사 발굴과 교회 선교교육
- 단계별 선교사 훈련 및 자발적 책무 이행을 통한 선교 역량강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선교전략 개발
- 다가올 통일한국을 교회와 함께 준비

1) FMB 리더십 구조의 확대 및 활성화

- (1) 세계선교훈련원(WMTC) 부원장, 전략연구개발원(SRDC) 원장 역할 활성화

- (2) 총무(행정사역 디렉터)의 전체 행정 관장
- (3) 해외사역 디렉터(IMD)와 동원 디렉터(MMD)의 사역 리더십 세움 & 활성화
- (4) 글로벌라운드테이블(GRT)과 글로벌네트워크(GNT) 운영
- (5) 멀티 오피스 운영

2) 총회 기관들과 협력을 통한 동원(인적, 물질, 영적)

- (1) 다음세대 선교사 발굴 : 침신대, 교회진흥원, 전국여성선교연합회, 다음세대사역위원회
- (2) 다음세대 선교교육 : 교회진흥원
- (3) 선교기도 운동 : 전국여성선교연합회
- (4) FMB 홍보 : Missio Dei, 총회, 침례신문사, 뱍티스트사
- (5) 전문인 선교사 개발 : 전국 남선교회

3) 단계별 선교사 훈련 및 자발적 책무 이행을 통한 선교역량 강화

- (1) MUT-Pro & MUT-Senior 훈련 : 선교사의 단계별 성장과 지도력 개발 훈련 활성화
- (2) 선교사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사역 시기에 따른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 제공
- (3) 선교사들의 자발적 선교 책무 이행을 통한 총체적 선교역량 강화

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선교전략 개발

- (1) 본부의 행정, 재정, IT등 시스템 전문화를 통한 업무 역량 강화
- (2) FMB 스튜디오 설비 : 비대면 사역 확장, 사역 콘텐츠 개발
- (3) SRDC 연구원들과 현장 선교사들의 연구역량 향상 지원 : FMB R&D 저널 출판

5) 통일한국을 교회와 함께 준비하고 통일세대를 세움

- (1) 침례교단에 통일준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교회 10%가 통일준비에 참여
- (2) 정기적인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주요 도시 교회에서 개최
- (3)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고 그들이 준비된 통일의 일꾼이 되도록 세움

VI. 지역교회, 본부와 선교사

1. 책무를 다하는 사역자 Accountable Professional
2. 학습하고 배우는 사역자 Learning Professional
3. 소통하는 사역자 Communicating Professional

국내 장기 체류 선교사의 현황과 개선을 위한 제안



| FMB / T국
문승호 선교사(D.Miss)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한국에 장기 체류하게 된 해외선교회 소속의 선교사들이 불필요한 한국 체류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종족과 나라에서 효과적으로 선교 사역의 목표를 이루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최근 코로나의 발생과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선교사의 수가 급증했다. 코로나로 인해 항공 운항의 중단은 일대 혼란을 가져오며 한 동안 선교사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혔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국내 체류 선교사가 많아지면서 선교사의 국내 장기체류가 이슈가 되었다. 코로나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항공로가 점차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선교사의 국내 장기체류가 지속 된다면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다른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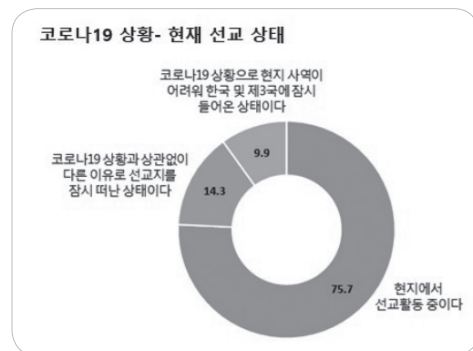
먼저 침례교해외선교회는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선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국내 체류의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체류 선교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교사가 장기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사유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선교사의 국내 체류 빈도와 기간을 줄이는 방안과 국내 체류 기간 중에 본국 사역에 동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 주제를

다루면서 전제해야 할 것은 선교사의 장기 국내 체류에 대한 책임은 선교사 한 사람이 아닌 FMB 본부와 파송 교회를 포함한 선교 공동체에 있다는 점이다. 선교사가 어쩔 수 없는 국내 체류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선교사는 격려와 위로와 치유와 재충전을 받아야 하고, 교회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나누어 지고, 본부는 선교사가 선교지로 재입국하여 더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FMB의 국내 체류 선교사 현황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안식년 혹은 안식월을 맞아 본국 사역을 위해 귀국한 경우이다. 두 번째는 다양한 이유로 임시 방문하는 경우이다. 현재 공식적으로 안식년이나 안식월을 맞이하여 본국사역을 위해 귀국한 선교사는 33 유니트 60명이다¹⁾. 전체 선교사의 7.8%이다. 그 이외의 이유로 국내에 체류하는 선교사는 94명이다. 침례교 해외선교사 전체의 12.3%이다. 임시 방문하여 국내 체류하는 선교사의 수가 훨씬 더 많다.

지난 12월 8일, KWMA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20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에서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지형근 목사는 코로나로 인한 한국교회 전체 선교사 코로나 현황을 발표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선교지를 떠난 선교사가 9.9%, 다른 이유로 국내에 체류 중인 선교사는 14.3%로 코로나 시대에 한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교회 전체 선교사의 비율은 24.2%이다. 침례교 해외선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국내 체류 중인 선교사의 비율이 20.1%이다. KWMA는 선교사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침례교 해외선교회는 전수조사를 했다는 점이 다르나 조사 시점은 비슷하다. 조건이 달라서 정밀한 비교는 아니어도 전체적인 흐름과 경향은 파악된다.



〈그림 1. 코로나 19 현재 선교 상황〉²⁾

선교사의 체류 기간별 현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6개월 미만이 가장 많은 34 유니트이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1유니트이다. 1년 이상은 28유니트가 된다. 가장 이슈가 되는 부

1) 안식월 입국자 29명(13가정, 3독신) 안식년 입국자 31명(14가정, 3독신)

2) 지형근, '코로나19 시대 해외 선교사 의견 조사' KWMA 목회데이터연구소(<http://news.kmb.co.kr/article/view.asp?arid=0016550950>)

분은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경우이다. 6개월 미만 체류 선교사들의 대부분은 출국일이 정해져 있다. 반면에 체류기간이 길수록 출국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34 유닛	11 유닛	8 유닛	18 유닛	2 유닛

〈표 1. 선교사의 국내 체류 기간별 분류〉

3. FMB 선교사의 국내 체류 사유에 대한 분석

본 연구에서 다루려는 것은 공식적인 안식월이나 안식년을 맞아 본국 사역 이외의 사유로 입국하여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이다. 공식적으로 안식년이나 안식월을 맞아 본국 사역을 위해 입국한 선교사를 제외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선교사는 총 94명 66 유닛이다. 이 그룹이 국내에 체류하는 사유는 다음의 표2와 같이 총 21가지로 나타났다.

가장 큰 사유는 선교사의 건강문제이다. 두번째로 많은 사유는 가족의 문제로 부모님이나 자녀가 체류하는 큰 이유가 되었다. 그 중에 자녀로 인한 체류가 더 많았다. 세번째로 따라오는 사유는 선교지의 상황과 비자 문제이다. 그 뒤를 잇는 것이 훈련과 사역 때문이다.

번호	사유	빈도수	번호	사유	빈도수
1	선교사의 건강	31	12	부친의 위독	1
2	비자	10	13	모친 간병	3
3	자녀의 방학	2	14	부친 간병	2
4	선교지 조정	1	15	자녀의 수술	1
5	선교지 이동	1	16	남편의 순직	1
6	선교지에 쿠데타 발생	2	17	학위와 논문 준비	2
7	코로나	8	18	자녀 입시 준비	7
8	강제 출국	1	19	출산	3
9	모친의 위독	2	20	훈련	3
10	부모님 장례	1	21	사역보고	2
11	자녀 결혼	1	합 계		85

〈표 2. 선교사의 국내 체류 사유 21가지〉³⁾

3) 2021년 12월 28일 침례교 해외선교회 본부 제공

이 21가지의 국내 체류 사유를 항목별로 나누면 다음의 표3과 같이 크게 7가지로 분류된다. 7가지 항목은 선교사의 건강, 선교사 부모님, 선교사 자녀, 선교지 상황, 코로나, 비자, 훈련과 사역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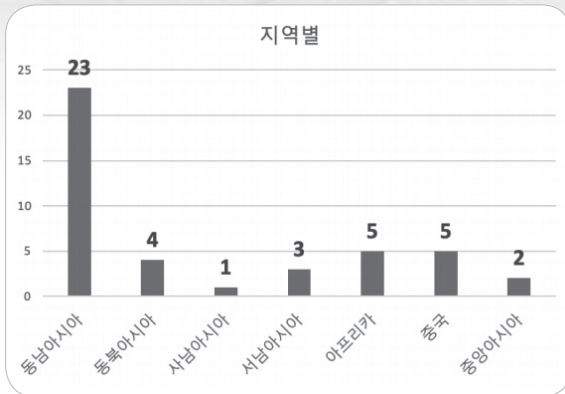
항목	사유들	빈도수
선교사의 건강	질병치료, 건강검진, 정기검진, 출산, 수술, 순직	35
선교사의 부모님	부모님 위독 혹은 간병, 장례	9
선교사의 자녀	방학, 입시 준비, 자녀의 질병치료, 자녀의 결혼	11
선교지 상황 변화	강제출국, 쿠데타, 선교지 이동 및 조정	5
코로나	코로나 치료, 코로나로 인한 항공편 중단	8
비자	비자 갱신, 새로운 비자취득을 위한 준비 등	10
훈련과 사역	MUT 훈련과 사역보고, 학위 과정과 논문 준비	7

〈표 3. 선교사의 국내 체류 사유의 항목별 분류〉

국내 체류 기간과 지역의 어떤 관련성을 보기 위해 다음의 표4와 같이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선교사들을 지역별로 체류 기간을 구분하여 분류해 보았다. 지역적 특성이 선교사의 국내 장기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구분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계
동아시아	0	1	2	0	3
동남아시아	6	5	9	0	20
서남아시아	2	0	2	0	4
중앙아시아	1	0	1	0	2
중국	3	2	2	1	8
아프리카	2	0	2	1	5
계	14	8	18	2	42

〈표 4. 체류 기간별 지역별 구분〉



〈그림 2. 장기 체류자의 지역별 그래프〉

장기 체류자들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선교사들이며 그 중에 동남아시아 선교사가 가장 많고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메리카 선교사는 없다. 지역적인 원인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지역적 원인은 선교지의 거주 환경, 의료 시설, 자녀교육 환경, 한국과의 거리 등이 될 수 있다.

4. 선교사 국내 체류 사유의 항목별 설명

• **선교사의 건강** : 선교사가 국내에 체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교사의 건강이다. 질병치료, 건강검진, 정기검진, 출산, 수술, 코로나로 인한 순직 등으로 귀국하여 체류 중이다. 건강검진이나 정기검진 등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것은 이미 암 등의 큰 병을 앓고 수술 및 치료 중이거나 차도를 기다리는 선교사의 경우이다. 출산과 수술의 사유는 한국의 의료기술과 보험이 발전되어 선교사들이 어려운 수술이나 출산을 국내에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선교사의 건강이 가장 큰 사유가 되는 원인중에 하나는 선교사의 고령화이기도 하다. 선교사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발병율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체류의 대부분의 경우가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선교사의 자녀** : 두 번째로 많은 국내 체류의 원인은 선교사의 자녀들이다. 자녀가 국내에서 학업을 하는 경우 자녀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함께 지내기 위해 입국한다. 선교지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자녀의 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을 방문하고 자녀들이 한국어를 익히도록 하는 이유로 입국한다. 더 흔한 경우는 선교지 학교나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학업 중인 경우에 한국 대학입시를 준비시키기 위해 입국한다. 또 자녀의 질병 치료로, 성인 자녀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국내 체류하는 경우가 있다. 성인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어 입국한다. 주요 원인은 자녀들의 교육이며 미성년 자녀들의 국내 거주는 부모없이 거주지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자녀의 거주 문제 역시 원인이 될 수 있다.

• **선교사의 부모님** : 많은 선교사가 국내에 체류하는 이유는 선교사의 부모님이다. 선교

사의 부모님들이 연로하여 위독하신 경우, 질병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여 선교사들이 부모님에 대한 부담으로 국내 체류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병간호의 필요는 종종 장기체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선교지의 상황 변화** : 선교지의 상황 변화는 대부분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일어난다. 미얀마의 쿠테타, 중국의 종교정책에 대한 극단적 태도, 인도의 비자 정책 변화 등이 대표적이다. 본 회의 인도 선교사들이 이 일로 어려움을 겪고 국내에 체류하며 비자를 기다리고 있으나 선교지를 철수한 경우는 아직 없다.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떠나야 했다. 중국을 떠난 많은 선교사들은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 떠났으나 일부는 아직 새로운 사역지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가 있다. 미얀마의 쿠테타로 인해 일시 철수한 선교사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 **코로나** : 현재 순수하게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국내 체류하는 침례교 선교사는 없다. 보통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출국을 못하고 국내에 머물고 있다. 국내에서 출산을 하기 위해 입국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항공편이 단절되어 발이 묶인 경우 또는 코로나로 인해 출국이 늦어졌다가 비자문제가 생겨 비자발급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 **비자** : 비자 문제는 선교사가 국내에서 체류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이다. 10개의 빈도수를 보여주며 세번째로 많다. 역사적으로 타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에게 발생하는 전통적인 문제이다. 최근 인도 선교사들이 비자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의 경우는 국가적인 정책 변화와 타종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압박이 원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동일한 원인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강제 출국 당한 경험이 있다.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선교사로서 비자 획득이 어려워 다른 방법으로 비자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도 있다.

• **훈련과 사역** : 최근 FMB는 MUT(Missionary Upgrade Training)이라는 선교사 연장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러 선교사가 이 훈련을 받기 위해 입국했다. 사역보고를 입국의 사유로 제출한 선교사들이 있으나 많은 경우 다른 첫 번째 원인이 있고 부차적으로 국내 체류 기간을 이용하여 사역보고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장 훈련을 위한 국내 체류는 대부분 단기간이거나 안식년 혹은 안식월을 이용하기 때문에 장기체류의 원인은 아니다.

5. 국내 장기 체류의 사례들

본 연구자는 장기체류 중인 선교사들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형편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정보가 없기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인 관점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몇 가지 사례를 정리해 보았다. 본 사례들은 본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초하였다. 선교사와 인터뷰를 해야할 필요를 느꼈으나 시간적 한계로 실시하지 못했다. 일부는 파송 교회의 선교 담당 목회자와 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보완하였다.

• **사례 1** : A지역 선교사는 부모님이 위독하여 가을 경에 입국하였다. 다음 해에 코로나로 인해 출국이 지연되었다. 출국 지연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중에 건강 등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A지역의 항공 운항이 재개되어 왕래가 가능한데 아직 선교지로 가지 않고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데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

이 경우는 본부의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문제를 해결하여 현장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 휴직 혹은 사직을 해야하는 케이스이다. 면담을 하여 선교사의 소명이나 헌신에 문제가 있다면 파송을 취소하고 사직하도록 안내를 해야할 것이다.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다른 사역적인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여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사례 2** : B지역 선교사는 임플란트 치료, 비자여행, 자녀졸업식 참석 등의 사유로 연초에 입국하였다. 입국 후 코로나 발생으로 출국이 지연되었다. 지금까지 2년 이상 국내에 체류 중이다. 3가지 사유는 모두 해결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 복귀하지 않은 것은 언급되지 않은 다른 사유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자가 받은 데이터 이외에 다른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한 가지 예상되는 것은 자녀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경우는 남편이 선교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별거 상태가 되어 단순한 국내 장기 체류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 문제로 연결된다. 가정의 측면에서 선교사는 상당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본부는 이러한 부분에 적극 개입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해야 한다.

• **사례 3** : C 지역 선교사는 연초에 개인적인 이유로 국내에 입국했다. 국내 입국 후에 선교지의 종교 정책 때문에 비자를 얻지 못하고 선교지 이동을 고려하게 되었다. 파송 교회로부터 지역 이동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교회와 적극적인 협의가 있었다. 이 기간에 파송

교회는 선교사가 새로운 사역을 정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협의하는 동안 파송 교회는 선교사 돌봄의 의무를 잘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파송 교회와 협의를 거쳐 선교사의 개인적인 형편과 기존 사역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파송될 지역을 결정하고 출국을 준비 중에 있다.

이 경우는 생각보다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파송 교회가 체계적으로 개입하여 선교지 변경의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를 잘 돌보고 오래 기다리며 협의를 하여 선교지 변경을 돕는 긍정적인 사례이다. 본부가 전략적인 개입을 속히 했다면 더 빠른 시일안에 선교지 변경을 결정하도록 파송 교회와 선교사를 안내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사례 4 : D지역 선교사로 사역하던 중에 교회 행사로 입국하여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 재입국을 못하게 되어 1년간 대기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였다. 선교지의 종교정책의 변화로 비자 발급이 어렵게 되어 파송 교회와 함께 선교지 이동을 고려하고 새로운 사역지를 논의하였다. 논의 중에 파송 교회의 정책과 선교사의 사역 방향에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파송 선교 사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선교사는 계속 국내에 체류 중이다.

이 경우는 사례3과 거의 동일하다. 단지 결과가 부정적이다. 파송 교회와 협의가 안되었고 선교사는 선교지 이동에 대한 결정을 못한 채로 계속 국내 체류 중이다. 본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파송 교회와 선교사와 함께 조율을 도왔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 사례 5 : E지역 선교사로 국가 비상상태로 쿠데타가 일어나 국내로 피신하여 일시 머물고 있다. 선교지의 급변한 상황으로 선교사의 안전을 고려하여 FMB 본부에서 취한 조치이다. 자발적으로 선교지에 머물고 있는 선교사가 있으나 쿠데타 상황에서 선교사를 철수하게 한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 최근에는 U의 전쟁 사태로 인해 U국 주재 선교사들이 주변 국가 혹은 국내로 철수했다.

이 경우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일어난 사례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본부가 개입하여 조치를 취했다. 마땅한 대응을 했고 본부는 위기 관리 시스템을 발동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셈이다. 선교지의 현장 상황이 호전되면 이들은 다시 복귀하게 될 것이다. 국내 체류중에 본국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한다면 국내 체류 기간에 지속적으로 선교 지원사역을 수행하도록 도와 선교사들이 사역의 공백을 갖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6. 선교사의 장기적인 국내 체류 개선 방안을 위한 제안

이번 연구를 통해서 FMB는 선교사의 국내 체류가 장기화되는 측면의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소수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선교사는 국내에 장기적으로 체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국내 체류 선교사의 비율이 한국 전체 비율보다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불필요한 체류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설득력이 없는 체류 사유, 필요 이상의 장기체류 그리고 사역적 이유 이외의 잦은 국내 방문은 FMB의 진정성과 지역교회의 선교 사역에 대한 의지를 실추시킬 위험이 있다. 선교사가 국내에 장기적으로 체류하여 실제로 선교사역을 수행할 수 없는데 계속 선교사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선교사의 국내 장기체류의 원인에 따라 어떻게 체류 기간과 횟수를 줄여서 효과적으로 선교사역을 수행하고 동시에 선교사가 돌봄을 잘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 **선교사의 건강** : 선교사의 국내 체류의 가장 큰 사유는 선교사의 질병이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사역 자체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회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선교회와 지역교회는 병든 선교사가 입국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한편으로 선교사가 병들지 않도록 돕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건강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대응은 예방이다. 선교사를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는 멤버 케어가 중요하다. 물론 이전에 선교사 허입 과정에서 질병과 질병의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예방 차원에서는 선교사 허입 과정과 허입후 멤버 케어 두 시점이 중요하다. 선교사 허입 과정에서 후보자들에 대해서 더 정밀하고 정확한 건강진단을 해야한다. 선교사는 일반적인 건강진단이 아닌 교차문화 상황의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요구된다. 선교사가 지원을 하는 단계부터 훈련과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선교사 선발을 심사하는 전 과정에서 건강문제를 현재보다 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선교사 후보생의 가족 전체의 건강검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비만인 경우에도 BMI 지수 기준을 제시하여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선발을 유예할 수 있다. 선교사 후보의 전체 가족이 건강의 기본적인 기준을 갖춘 경우에 선교사 선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선교사로 허입이 되어 파송을 받으면 그때부터 멤버 케어 시스템을 통해서 선교사를 돌봐야 한다. 선교사가 큰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치기 전에 선교현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사

전에 방지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지로 떠나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무릎 쓰고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다. 특히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의 복음 전도는 선교사에게 주는 위험과 스트레스 정도가 심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인지해야 한다. 선교사는 헌신적으로 자신의 몸을 불사르겠지만 여전히 선교사는 더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 스스로 보호받고 돌봄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때문에 선교사 혼자 일하기 보다는 팀으로 일하도록 격려하고 팀 안에서 적절한 돌봄과 견제를 통해 건강관리를 하도록 제도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FMB 구조 안에서 팀과 지부의 사역과 행정 조직안에서 팀장과 지부장의 멤버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규약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안식년을 재조정하여(7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모든 선교사는 안식년을 반드시 실행하도록 규약을 정하고 실제적인 실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선교사 자녀** : 한국 선교사에게 자녀의 교육은 매우 중요시되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로 인한 국내 입국에 대한 제한은 어려움이 있다. 자녀와 관련된 일로 한국을 방문할 때 일정 기간 동안 방문을 허락하는 규약을 정해서 적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선교사 부모** : 부모의 장례식이나 병의 위중으로 인해서 국내에 귀국하는 경우는 당연한 일이나 그것을 사유로 하여 귀국 일정이 너무 길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장례식 참석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부모님이 위독하여 돌보아야 할 경우 역시 적절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넘을 경우 선교사 휴직 제도를 마련하여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선교지의 상황 변화와 비자** : 최근 몇년 사이에 선교지 상황이 급변하여 어쩔 수 없이 선교지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중국과 인도가 그렇다. 본부는 이런 경우의 선교사들을 멤버케어 차원에서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다음 단계를 안내하고 도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선교지의 문제는 모두 선교사에게 맡기는 경향이였다. 많은 경우 선교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본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사유로 인한 국내 입국과 체류는 선교지 상황의 호전과 비자 해결이라는 결과를 볼 때까지 허용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선교지의 변화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철수했을 경우에 멤버케어 시스템(CISD 과정)을 통해 먼저 선교사를 보살펴야 한다. 선교사가 안정되고 다음 사역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파송교회와 협의하여 본부는 선교사가 다른 선교지를 결정하고 떠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와야 한다.

선교사가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것은 이유를 떠나서 합당치 않다. 마땅한 이유가 있다면 목적에 따라 일정 기간 체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목적없는 장기체류는 지양되어야 한다. 안식년은 1년간 본국사역의 일환으로 필요한 기간이다. 비자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 기다리는 동안 본국에서 선교 동원, 훈련, 행정등의 선교 지원 사역을 할 수 있다.

7.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선교사의 국내 장기 체류의 원인과 문제를 분석하여 선교사들이 불필요한 국내 장기체류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선교사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 주제의 연구를 의뢰받고 연구조사 중에 FMB 본부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아님을 발견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비율보다 본부의 비율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혹은 과도한 선교사의 국내 장기 체류를 줄이는 일은 필요한 선교행정의 과제이다.

지금까지 선교사가 현장을 떠나는 것에 대한 본부의 행정 통제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 등의 잦은 후원교회 방문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년 전에 지부장 회의에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후원교회들이 선교사들의 잦은 방문을 불편해한다는 것이다. 선교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사역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선교 사역에 필요가 있으면 국내에 입국해야 한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후원교회들을 방문하고 선교동원을 해야 할 것이다. 선교 사역의 모든 것이 가하나 선교 공동체의 질서가 필요하므로 FMB는 효과적으로 선교 사역의 열매를 맺도록 적합한 규약을 재정하여 통제와 허용의 행정적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본부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본부가 제공한 데이터는 선교사들이 입국할 때 제시한 초기 사유가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귀국 이후 선교사의 상황 변화에 대한 정보가 상당 부분 부족했다. 연구중에 장기체류하는 선교사들과 인터뷰가 필요함을 인식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개인적으로 몇 명의 선교사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인터뷰를 하지 못했다. 한 개의 파송 교회의 선교 담당자와 인터뷰

가 가능하여 일부 선교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나 여전히 부족한 데이터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밝힌다.

| 연구의 발견들

첫째, 상대적으로 적은 수이지만 비합리적인 이유로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선교사가 존재한다. 이것은 선교사의 국내 장기체류의 원인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이다.

둘째, 선교사가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선교사의 건강 때문이다.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다. 선교사의 선발과 훈련 그리고 선교사 돌봄을 강화하여 건강한 선교사를 선발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교차문화 지역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필요하다면 휴가나 안식년의 준수와 관련한 규약을 정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교사의 국내 장기체류의 원인들 중에 다양한 개인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본국 방문 사유와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약을 정하여 선교사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도울 필요가 있다.

넷째,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선교사의 빈도수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본국과 거리가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장기체류 선교사가 적거나 거의 없다. 본국과 거리가 가까운 곳은 상대적으로 국내 장기체류 선교사 수가 많다.

다섯째, 동남아시아 지역의 선교사가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비율이 높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선교지 특성과 선교사의 특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어떤 선교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 장기체류 선교사가 많아지는가를 연구하여 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지역의 선교사 혹은 연구원이 따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부는 현재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선교사들을 점검하고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즉 본부는 선교사의 본국 입국을 조정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통제는 하고 있지 않다.

일곱째, 선교지의 상황 변화로 선교지 변경을 필요로 하는 선교사들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하다. 선교지 변경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했다. 본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선교사의 은사와 사역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선에서 가장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본부의 전체적인 사역 방향과 흐름을 따라 안내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 제안 사항

1) 안식년 규정

- 사역기간을 5년 단위로 조정하여 4년 사역하고 1년 안식년을 하도록 한다. 필요하면 2년마다 안식월을 하도록 하여 개인적인 필요를 처리하게 한다.
- 안식년은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안식년 선교사는 입국 후 2주 안에 회장에게 사역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사역 디브리핑을 받는다. 안식년 선교사는 입국 후 1개월 안에 건강 검진을 받고 진단결과를 본부에 제출한다. 안식년 준수는 선교사 평가에 반영한다.
- 안식년 혹은 선교지 상황의 변화로 국내에 체류하게 되는 선교사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선교동원, 선교훈련, 선교행정 사역에 본부의 요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참여하도록 한다. 사역 기간은 본부와 선교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인 선교사는 제외한다.

2) 국내 방문 허가 규정

- 선교사가 건강과 관련하여 입국이 필요할 때 FMB의 GNT 소속 전문의사의 상담을 받고 국내 입국 여부를 의사, 본부, 선교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파송교회에 보고 한다. (GNT는 FMB의 글로벌 네트워크 팀을 의미하며 FMB를 지지하고 돕는 외부의 전문인력을 네트워크로 묶은 그룹이다) 본국에서의 체류 기간은 전문의사의 견해와 선교사의 형편을 고려하여 협의 후 결정한다. 치료 중에 필요하면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본국에 입국할 때 기본적으로 2주간 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최장 1개월까지 가능하다. 개인적인 필요란 선교사의 직계 가족과 관련된 애경사 등을 의미한다. 부모님의 위독, 장례식, 자녀 학교의 입학과 졸업, 기타 가정사의 필요 등.

- 특정 사역을 위해 본국에 방문할 때는 사역의 필요 기간 동안 방문할 수 있다.
- 연장 훈련은 안식년 기간동안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연장훈련을 위해 훈련 기간동안 훈련의 목적을 위해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 선교사가 본국 입국 허락을 받으면 입국 전에 입국과 출국 일자가 확정된 항공권 사본을 본부에 제출한다.(대부분의 국내 장기 체류자들은 출국 일정이 안되어 있다)

3) 선교사 선발 규정

- 선교사 선발시 BMI 비만 지수가 30을 초과하면 선발을 유예한다.(미국의 한 선교 단체에서는 BMI 지수 32을 초과하면 파송을 유예한다.)
- 선교사 재파송 제도를 신설한다. 첫번째 기간의 임기를 마친 선교사는 입국 후에 선교사 평가를 거쳐서 재파송을 받도록 한다. 재파송을 심사할 때에 선교사의 건강을 정밀하게 점검한다.

4) 멤버케어 규정

- 지부장은 1년에 2회 이상 회원들을 돌아보고 사역 현황과 회원들의 건강과 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 팀장은 팀 멤버들의 상황을 수시로 지부장에게 구두 보고하고 필요하면 지부장이 방문하여 살펴보게 한다. 방문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로 본부가 지불한다.
- 지부장은 신입 회원들의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고 정착과정과 언어훈련과정을 안내하고 돕는다. 필요하면 방문하여 점검한다. 방문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로 본부가 지불한다.(신입 선교사의 정착 초기 스트레스가 가장 크기 때문에 초기 과정을 철저히 관리한다)
- 지부장은 각 회원들의 연간 주어진 휴가 사용을 확인하고 휴가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권면한다. 지부장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들의 명단을 매년 회장에게 보고하여 선교사 평가에 반영한다.
- 본부의 권역 담당 간사는 국내 체류 선교사의 현황을 매주 업데이트하여 총무와 회장에게 보고한다.
- 안식년 때마다 선교사 평가를 실시한다. 선교사 평가 항목에 선교사의 건강 지수를 강조한다.

만성 재정 부족 선교사들을 위한 재정 모금 대책



| FMB/키르기스스탄
오선택 선교사 (Th. D)

I. 들어가는 말

FMB를 포함해서 각 선교단체는 만성적인 재정후원 부족 선교사가 있다. 이들의 존재는 해당 선교사와 사역현장 뿐만 아니라 선교 본부와 파송 교회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준다. 본 보고서는 만성 재정 후원 선교사는 어떤 선교사를 의미하는지, 만성 재정 부족 선교사를 위한 본부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만성 재정 부족 선교사의 후원 개발을 위한 조치 그리고 본부와 이사회를 위한 제안 등을 논의하기로 한다.

II. 만성 재정부족 선교사란 누구인가?

IMB의 경우는 선교부에서 선교비를 모금해서 지역별로 일정액을 선교사에게 지급하므로 선교사가 따로 모금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선교단체는 선교사가 스스로 모금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재정부족 선교사가 누구인지 한 마디로 정의하기 쉽지 않다. 현재 FMB에서는 재정부족 선교사를 매월 평균 후원금이 가정일 경우

150만원 이하, 싱글인 경우 80만원 이하인 선교사로 보고 있다.¹⁾ 이것을 기준으로 할 때 FMB 전체 400가정에서 후원이 150만원 이하가 147가정이다.

이중에서 49가정은 후원은 150만 이하이지만 재정이 부족하지 않는 선교사들이다. 그 이유는 디아스포라 사역자로 교회서 사례금을 받는 선교사들과 교회건축, 학교건축, 운영 등의 프로젝트 사역으로 목적헌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파송 교회나 후원교회에서 FMB로 통하지 않고 직접 송금하기 때문이다.

FMB에서 추정하기로는 실제로 재정이 부족한 선교사는 100여 가정(25%가량) 해당된다. 이 중에서도 본부에서 파악이 어려운 선교사가 있는데 본부로 들어온 후원금이 50만원 이하 선교사들이 50가정 정도 있다. 실제로 이 재정으로는 생활이 안되는데 사역도 생활도 어려움 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른 통로로 재정을 공급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부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선교사들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관리와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WMTC에서 신입 선교사를 훈련할 때 FMB의 재정원칙은 가정은 최소 200만원 후원을 확보하고, 싱글은 120~150만원 후원이 되어야 파송(출국) 가능하다고 교육한다. 본부에서는 처음부터 재정 일원화 원칙을 강조해 왔다. 즉, 후원은 FMB에서 부여한 계좌 한 통로로만 사용하고 후원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계좌는 사용하지 않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선교사의 정직성 문제와 본부차원에서 관리 소홀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III. 선교사의 재정 모금을 위한 방안

1. 선교사와 재정후원 모집

선교사의 재정후원 모집에 대한 몇 가지 상이한 견해가 있다. Faith Mission(믿음 선교) 모델은 선교사가 직접적으로 모금을 하는 것을 금기시한다. 반면, DMPD(Discipleship Ministry Partner Development; 동역자 개발훈련) 모델은 선교 후원 모집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또한 이 두가지를 절충한 중도적인 견해도 있다.

1) FMB의 신재주 총무가 2022년 1월에 보내온 자료를 근거로 했다.

2. 후원 모집의 성경적 근거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은 선교가 후원을 모집하고 후원을 받는 것은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이다. 빌립보서 4장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사역을 위하여 보낸 헌금에 대하여 감사하며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4:18-19)”고 축복하는 내용이다. 위대한 선교사 바울도 선교사역을 위해 재정후원을 받았고, 후원금과 후원자들을 인해 기뻐하고 감사했으며, 후원자들을 축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원 모금은 선교사 자신과 후원자에게 공동으로 유익을 준다. 후원 모집을 통해 선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사역적으로는 사역을 지탱해 줄 기도 동역자를 얻게 해 주고, 숨겨진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고, 사역의 책임감이 고무된다. 선교사를 후원함으로 후원자는 직접적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고, 재정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재정후원을 통해 선교후원자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점차적으로 전임사역자로 헌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선교사는 후원을 모집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의 품위를 지녀야 한다. 후원 모집을 하면서 선교사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과 부르심 안에서 요동치지 않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져야 한다. 선교사의 부르심은 가장 절박한 부르심(마 9:38)이며, 사람들이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은 특권임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후원 모집을 통해 풍성한 결과를 기대해야 한다. 자신의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선교사가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지만, 미안해하거나 열등감, 콤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없다.

3. 선교 재정과 후원의 모집²⁾

선교 재정에는 초기 정착금과 월 후원금이 포함된다. 초기 정착금은 선교사가 초기에 선교지로 입국하거나 사역지를 이동할 경우 항공료, 기본적인 이사 비용, 생활 도구, 첫 2개월 정도의 생활비 등이 포함된다. 월 후원금은 사역을 위한 생활비, 주거비, 사역비, 언어습득비 등이 포함된다.

2) WMTC의 이병문 부원장이 제공한 선교사 DMPD (동역자 개발훈련) 매뉴얼을 참조함.

선교사는 전화, 편지, 방문 등의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선교사로서의 소명, 자신이 사역하는 선교지의 영적 필요와 그것들에 맞는 자신의 재능/은사와 전략, 선교지 교회의 미래의 가능성, 자신들이 감당할 선교사역의 부분들 등을 구체적으로 후원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후원자들이 자신들의 참여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알게 함으로 기쁨과 확신 가운데 재정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후원모집을 위해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

1) 좋은 인간 관계의 형성

후원 모집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기독교인들과 좋은 인간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재학 시절 학교의 친구들이나 신학교의 급우들은 후일의 목회자들로서 영향력이 크다. 특히, 교역자들은 선교의 후원에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후원 모집 시 성실성과 영혼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2) 주소록 작성과 관리

재정 후원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 메일주소 등을 포함한 주소록을 만들고 수시로 보완하고 수정하라.

3) 서신 교제

정기적으로 기도편지를 작성하여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해 알린다. 이 외에도 각종 절기 카드 보내기, 각종 축하 카드 보내기, 각종 선교 정보자료 보내기, 선교 서적을 선물함으로써 후원자가 선교에 관한 지식이 자라도록 도와준다.

4) 전화하기

후원자들에게 안부전화를 하거나 선교와 관계된 모임에 초청함으로써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5) 후원자 방문

중요한 분들은 직접 만나서 본인의 선교의 계획에 관하여 함께 나누라. ① 모교회로부터의 시작해서 ② 후원교회 모집 ③ 개인 후원자 모집 ④ 기타 자원을 통해서 후원자를 모집한다. 후원자를 방문할 때 다음 4가지 준비물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1) 기도카드

목적 : 선교사를 간략히 소개하고 선교사를 기억하게 하여, 계속 기도하게 함

대상 : '개인' 파송/후원교회 성도, 개인후원자, 지인

방식 : 종이카드, 자석식, 기념물 등.

(2) 후원요청서

목적 : 교회에 선교사를 소개하고 후원을 공식적으로 요청

대상 : 후원교회 담임목사/선교목사/선교위원회

발송 방법 : ① 직접 전달 ② 이메일, 카톡 등 ③ 기타

내용 : 교회의 양식이 있을 경우, 교회의 양식 및 제출요구 서류

(3) 후원요청 보고 ppt, 영상자료

목적 : 교회의 공적 순서에서 선교사를 소개하고 후원을 요청

대상 : 후원교회 성도들, 목회자, 선교위원회

내용 : ① 자기소개, 선교 소명 ② 선교사역 소개 ③ 후원 요청

6) 재정 관리인(동역자 관리인) 선정

재정 관리인은 매달 선교현금 내역을 본부와 확인하고 작성자가 현금이 되지 않을 때 이를 follow up 해주어야 한다. 재정 관리인들은 선교사와 후원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돕고 후원에 대한 감사의 편지와 선교지 소식을 업데이트하여 보내준다. 새로운 후원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금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 신속히 본국에서 대처해 준다. 현금에 대한 보고서 작성 등을 담당한다.

IV. 만성 후원부족 선교사를 위한 대책

1. 선교사 개인의 노력: 재정 후원부족 선교사의 후원 모금을 위해 선교사 자신이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한다.

1) 재정 후원부족 선교사는 본인의 선교사역을 위해 후원을 모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중요한 사역임을 인식해야 한다. 부족한 후원을 채우기 위해 위에 제시한 방법을 비롯해서 스스로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스스로 재정모금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개인이 후원자 모집을 할 경우 본부 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추천서를 지참한다. 본부 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후원 요청서 양식이 있다. 이것을 아는 선교사들이 많지 않다. FMB 회장 추천서와 이력서와 사역 소개서를 첨부해서 교회에 보냈을 때 교회가 후원하게 된 사례가 있다.

2. 본부 차원의 노력

1) 후원금을 본부 계좌를 통해서 받아야함을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본부 계좌를 통해서 받지 않는 선교사들이 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 안식월이나 안식년으로 들어오는 선교사들은 의무적으로 재정 후원 상황을 점점 받고 재정후원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후원액수가 채워질 때까지 재파송을 보류한다.³⁾

3) FMB 차원에서 재정 모금 전략팀을 구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통하여 미션펀드를 조성하여 10%가량의 선교 경비를 본부가 지원하도록 한다. 신입 선교사의 경우 전체 경비의 10%가량을 본부가 지원함으로써 본부가 권위를 갖고 선교사를 지원하고 파송할 수 있게 된다.⁴⁾ 사역자들의 재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정 상황이 어려운 자들을 찾아 돕는 방법을 강구한다. 특히, 40세 이하의 선교사들 중에 후원 금액이 부족한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

Vision 2030을 통해 본부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2만 FMB 패밀리 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서 신입 선교사 중심으로 본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⁵⁾ 아니면, 개교회를 중심으로 오천만, 일만만, 이만만 후원금 작성 운동을 통해 개인이 적은 금액으로 후원하는 경우,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후원을 끊지 않고 지속할 수 있다. 안식년 선교사들 중에 동원팀을 구성하여 지방회별로 방문하여 홍보하도록 하고 마지막 부분에 FMB의 재정적 필요를 알린다.

3) KPM(고신 선교부)의 경우 만성 후원부족인 선교사들 가운데 일부는 선교본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후원 받지 않고 개인 통장으로 재정후원을 받음으로 선교본부에 적자계정으로 부담을 주는 선교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KPM은 시행수칙을 만들어 만성적 자인 선교사들의 재 파송을 보류하자 그런 선교사들이 개인적으로 받던 후원을 선교본부의 공식적 후원계정으로 돌려 만성적자가 거의 해결되었다. FMB 내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있는 바 동일한 처방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4) 최원진 교수의 제안

5) 지금까지 침례교회들의 후원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본부에서 시도하려는 것은 선교사 개인이 아니라 협동 선교 펀드로 후원해 달라고 요청하려는 것이다. 월 10만원씩 협동선교비로 헌금하는 교회들이 100개가 되면 본부 차원에서 선교사를 선정하여 50만원 후원 20명을 매월 지원할 수 있게 된다.

4) GSM이나 캠페션 등 선교후원 모금을 탁월하게 잘 하는 단체의 전략을 연구하여 실제적으로 선교 후원자를 모집하여 현장 선교사들과 연결해 준다. 예를 들어, GSM선교회는 후원자 모집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역별로 선교후원의 날을 운영하여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선교사 초청과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후원자 모집을 한다. 캠페션의 경우-각 개교회를 방문하여 탁월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후원 모집시에 자동계좌이체 약정서를 활용한다. 본부에서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FMB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후원 모집에 활용하게 한다.

5) 사역자의 풀링 : 선교사들의 선교 재정을 연말에 정산한 후에 남는 부분을 본인이 원하는 다른 선교사에게 현금할 수 있도록 하자.⁶⁾

6) 파송 교회에서 국민 연금, 은퇴 연금, 노령 연금, 실손 보험, 퇴직 연금 등을 내줄 수 있도록 권면한다. 문제는 침례교 목회자들 중에 90 퍼센트 이상의 은퇴 이후의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7) 재정 모금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WMTC 차원에서 효과적인 재정 모금 전략 세미나 개최하거나 기도 편지 쓰고 후원 모금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후원 모금 잘 하는 선교사들의 사례를 파악하고 활용한다.

V. 본부와 이사회를 위한 제안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의 FMB의 선교업무 내규의 선교비에 관한 조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 선교업무 내규의 선교 재정에 관한 조항은 선교비의 수입, 선교비의 내용, 선교비의 모금에 관한 항목이 누락되어 있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재정 부족선교사들에 관한 언급도 없다. 따라서 차기 FMB 이사회에서 해외선교회 선교업무 내규의 선교비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제안한다.

6) KPM은 semi pooling 시스템을 사용하여 매년 흑자계정의 선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자계정이 난 선교사 가운데 돕고 싶은 사람에게 자신의 재정을 나누어 적자를 메우도록 하고 있다. 이 방법으로 갑작스럽게 후원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일시적인 적자가 발생한 선교사들이 만성적자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FMB에서 semi pooling 시스템이 생소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이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7) 후원 모집의 목표는 가정은 최소 250만원, 싱글은 170만원이다. 만일 모금액이 가정 200만원, 싱글 130만원 이하일 경우는 재

현행 FMB 선교업무 내규	현행 FMB 선교업무 내규
<p>제12조 선교비의 조정 본회의 사정과 선교지의 생활 조건에 따라서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파송 가능한 선교비 모금 목표액을 조정한다.</p>	<p>제12조 선교비 본회 소속 선교사의 파송을 위한 최소한의 선교비는 가정 250만원 독신 170만원을 기준⁷⁾으로 한다. 그러나 선교지의 생활 조건에 따라서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파송 가능한 선교비 모금 목표액을 조정한다.</p>
<p>제13조 기타 선교비 1항 휴가 규정에 의거 계획, 보고된 년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p>	<p>1항. 선교비 수입 (1) 선교비는 교회와 단체 및 개인의 헌금과 자비량선교를 통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수입, 연금 등을 포함한다. (2) 모든 선교비는 반드시 FMB 본부를 경유해야 한다. 만일, 이 규정을 어길 시는 FMB 선교사로써 파송을 보류하거나, FMB의 행정지원을 받을 수 없고, 국내 체류 시 안식관 사용을 불허한다.</p>
<p>제14조 선교사의 준비 1항 선교사의 어학 준비 - 어학 공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선교사는 임지에 도착한 후 2년간 어학 훈련 및 사업을 위한 준비 활동에만 그 임무가 주어진다. 3항 본국이나 타국에 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필히 사전에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항 어학 훈련은 현지 판단에 따라서 단축할 수도 있다.</p>	<p>2항. 선교비 내용 (1) 기본선교비 ① 생활비(자녀는 미혼으로 만26세까지 하고, 장애 자녀에 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언어훈련비 ③ 주택비 ④ 자녀교육비(대학은 8학기 혹은 4년만, 휴학기간과 대학 이상은 불 지급) ⑤ 활동비 ⑥ 근속수당 ⑦ 휴양비 ⑧ 사역비(지역선교부 운영비) (2) 파송비 ① 이사비용 ② 현지 정착비 ③ 항공료(출국공항에서 정착지까지) (3) 기타 ① 행정비 ② 비자경비 ③ 은퇴적립금 ④ 비상금 ⑤ 경조비</p>

정 부족선교사에 해당된다. 이런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만성 재정 부족선교사에 해당된다. 이를 기준으로 재정 후원에 관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3항. 선교비 모금

- (1) FMB 본부는 선교사의 모금활동을 지도하고 협력한다.
- (2) 모든 선교사는 FMB가 책정한 기본 선교비의 110%를 모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선교사는 파송을 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⁸⁾
- (3) FMB 회장 직속으로 재정 모금 전략팀을 구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통하여 선교펀드를 조성하여 10%가량의 선교비를 본부가 지원함을 목표로 한다. 액수가 부족한 경우 40세 이하의 초임 선교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4항. 선교비 지출

- (1) FMB는 각 지역별 상황을 감안하여 모금액을 책정하고, 매월 책정된 금액을 선교비로 지급한다.
- (2) 선교사가 현지 한인교회나 자비량 선교, 연금 수입 등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할 경우, 본부를 경유하여야 하나 편의상 현지에서 입금 처리하고 본부에는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 (3) 이 경우 FMB 본부는 차기 선교비 송금시에 수령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한다.

제 13조. 계정 관리

1항. 개인별 개정관리

- (1) 선교사에게 입금된 선교비는 FMB 재정부 내에 선교사 개인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선교사의 계정은 본인 외에 열람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 회장의 허락으로 열람할 수 있다.
- (3) FMB는 정기적으로 해당 선교사에게 계정의 수입지출 및 잔고와 증감상황을 통보하고 지도한다.
- (4) FMB는 매년 흑자계정의 선교사 중에 흑자가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자발적으로, 혹은 본부의 추천으로 재정적자 선교사 중 돕고 싶은 사람에게 자신의 재정을 나눌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있다.
- (5) 특별한 선교목적 헌금은 계정을 별도로 하여 관리할 수 있다.

2항. 계정적자 관리

- (1) 선교사의 개인재정 상황은 원칙적으로 기본 선교비의 11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2) 안식월이나 안식년으로 들어오는 선교사들은 의무적으로

8) 재정모금 목표에 미달된 선교사를 파송을 보류하는 것은 시행하기에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는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야 후원을 해주는 교회들이 있다. 후원을 약속했는데, 바로 하지 않고 선교지에 가야 송금해주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FMB 회장이나 총무에게 재정 후원 상황을 점검 받고, 재정후원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반드시 체류 기간 동안에 후원액수가 채워질 때까지 재정모금을 해야 한다.

- (3) 국내 체류기간 동안 모금액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모금액수가 채워질 때까지 재 파송을 보류한다.⁹⁾
- (4) 선교사 계정의 적자는 선교사가 사임하거나 은퇴할 때 본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9) 이 조항은 선교비를 본부를 통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직접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파송이 보류될 경우 본부와 선교사와의 갈등, 혹은 본부와 파송 교회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경우 FMB본부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한다. FMB는 막무가내로 나오는 교회나 선교사들을 제재할 힘이 아직 약하다. KPM나 GMS는 총회가 뒤받침이 되어주고 권위를 부여해주는 구조라 선교부의 결정이 총회 결정과 같은 권위와 힘을 갖는다. 하지만 FMB는 대형교회를 비롯해서 개교회 권위가 크고, 총회가 막아주고 밀어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파송 교회의 결정을 제어하기 어려움이 있다. 이사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시대의 선교

| 김경희, 양선희, 유미희, 이나연

기독교 역사상 선교는 언제나 그 시대의 문화와 문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왔다. 그 때문에 인류 문명에 큰 변혁을 일으킨 산업혁명은 각 시대별로 선교 패러다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현 시대가 당면한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 구석구석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그 파급력의 크기만큼 선교 패러다임에 미칠 영향력도 심대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비록 단편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관련된 정보와 문서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가 선교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1. 산업혁명과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

산업혁명	산업혁명의 특징	선교 패러다임
1차	18세기 중반. 증기엔진 발명 기반. 증기선, 증기기관차, 방직기, 철강산업 직물 생산의 기계화. 엄청난 물량 생산과 이 동, 일자리 창출. 가내수공업 시대 ⇒ 공장 시대 농경·농촌 사회 ⇒ 산업·도시 사회	제 1기 해안선 선교시대. 지리적 장벽을 넘어섬. 마차 대신 증기기관차와 증기자동차, 범선 대신 증기선을 타고 더 쉽게 선교지로 나감 예) 윌리엄 캐리-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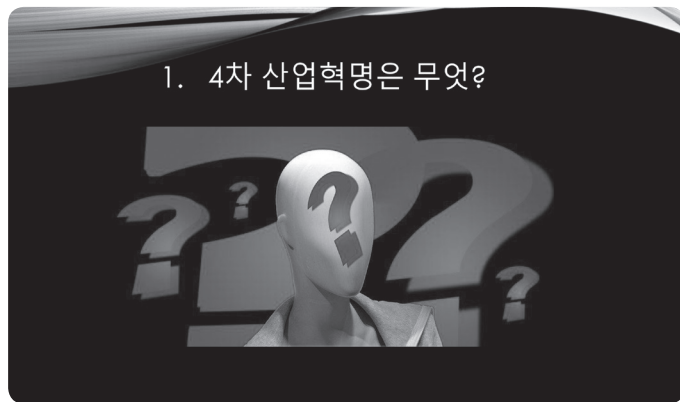
2차	19세기 후반. 전기 에너지 기반. 전기, 전화, 오일, 축음기, 내연기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도입으로 대량생산 가능. 대량생산 대량소비	제 2기 내지 선교시대. 문화적 장벽을 넘어섬. 해안 도시들과 내륙 간의 교통과 소통이 더 수월 해져 내륙 산간 지역까지 미침 예) 허드슨 테일러-중국 내지
3차	일명 디지털 혁명. 컴퓨터와 인터넷 출현. 전자, IT,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정보 통신 기술. 정보처리와 생산속도가 빨라짐. 사람들간 연결성이 확장됨.	제 3기 미전도종족 선교시대. 언어 인종학적 장벽을 넘어섬. 비행기로 이동. 전후방 소통 신속 예) 캐머른 타운센드-카키켈 언어로 신약 성경 번역 도널드 맥가브란-인도 랄프 윈터-과테말라
4차	디지털 혁명을 기반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나노 기술, 생명 공학, 3D 인쇄, 자율주행 차량.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웹에 연결하고 비즈니스 및 조직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	제 4기 Total Mission 지역, 언어, 문화, 인종학적 장벽 초월 속지주의 ⇒ 속인주의 전세계 모든 종족을 위한 성경번역 완료 (2030년경 세계 11,730개 종족 대상)

2.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은 2016년 스위스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이다.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 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며 그 핵심은 사물인터넷

과 인공지능, 빅 데이터이다. 이 외에도 로봇공학, 무인 운송 수단(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나노기술, 3D 프린팅 등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을 극도로 단순화한다면 데이터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축적된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을 상대로 승리한 사건이 이를 잘 보여준다. 빅데이터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됨



에 따라 정치와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현대 사회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각 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의 삶이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해지기도 하겠지만 그와 함께 새로운 문제점도 생길 것이다. 정보를 독점하고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이 천문학적 수입을 독차지하는 극도의 양극화와,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일자리 감소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 대표적일 것이다.

2-1. 4차 산업혁명의 특징

특징	속성	예측되는 결과
지능화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사물이 지능화됨. 극단적 자동화, 무인화	일자리 퇴출, 인간 소외
초연결성	1) 인간과 인간, 2) 인간과 기기, 3) 기기와 기기가 서로 연결되는 사회. 전 세계 사람들이 연결되고, 만물이 서로 통신하는 시대. 사람과 도시, 집, 자동차, 건물 등이 하나로 묶임. 예)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국경이 무의미해짐. 문화적 간격이 좁혀짐
개인화	초연결성과 지능화로 개인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가 가능해짐. 혼자 집안에서 모든 것 해결 가능	퓨빙(Phubbing)현상 증가로 무관심, 관계 단절, 기계화, 비인격화, 외로움
융합성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짐. 현실과 가상 공간의 간격이 사라짐. 예) O2O, 가상현실, 증강현실	신기술과 전통산업의 융합으로 수많은 직업이 사라짐

2-2. 4차 산업혁명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 빅 데이터(Big Data) :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모든 데이터. 또 데이터를 저장·관리·분석할 수 있는 기술과, 이를 유통, 활용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지칭함. 빅 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다변화된 현대 사회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과 개별화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 관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짐.
-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 인간의 지적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과학기술. 기계가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새로운 입력 내용에 따라 기존 지식을 조정하며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상황을 인지하고 이성적·논리

적으로 판단·행동하며, 감성적·창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까지 포함.

-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 IoT) : 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기존의 인터넷이 컴퓨터나 무선 인터넷이 가능했던 휴대전화들이 서로 연결되어 구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사물 인터넷은 책상, 자동차, 가방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연결되어 구성된 인터넷.
- 3D 프린팅(3D printing) : 프린터로 물체를 뽑아내는 기술. 종이에 글자를 인쇄하는 기존 프린터와 비슷한 방식으로, 다만 입체 모형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하여 3D프린팅이라고 부름. 보통 프린터는 잉크를 사용하지만, 3D프린터는 플라스틱을 비롯한 경화성 소재를 사용. 기존 프린터가 문서나 그림파일 등 2차원 자료를 인쇄하지만, 3D프린터는 3차원 모델링 파일을 출력 소스로 활용함.
- O2O : 온라인 투 오프라인(online to offline)의 앞 글자를 따온 것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온라인과 오프라인 영역의 융합. 배달의 민족은 대표적인 O2O 서비스임.
- 퓨빙(Phubbing) : 전화기의 ‘폰’(phone)과 무시한다는 뜻인 ‘스너빙’(snubbing)의 합성어.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스마트폰에만 빠져 있는 현상을 일컫는 말.
- 생명공학(Biotechnology, BT) : 생물의 유전자 DNA를 인위적으로 재조합, 형질을 전환하거나 생체기능을 모방하여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는 기술 즉, 생명 현상, 생물 기능 그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기술.
- 가상현실(VR) :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환경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도 실제 주변 상황과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과학기술. 항공기 조종법 훈련, 게임 등에 사용됨.
- 증강현실(AR) : 실제 세계에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 포켓몬 고(Pokemon Go)가 대표적인 사례.

3. 코로나 시대의 사회현상

지난 2년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은 전례 없는 범세계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짧은 시간에 일으켰다. 외관상 마치 시계바늘이 멈춘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특별히 전 영역에서 디지털화를 가속화했다. 코로나시대가 초래한 사회적 현상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각 국가가 실시한 ‘셧다운’ 정책과 거리두기 정책을 통해 비대면·비접촉(언택트 Untact)

- 사회로 전환되었다. 예) 재택근무, 원격수업, 홈트레이닝 등
- 2) 물리적 비접촉인 거리두기는 소외되지 않으려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온택트(Ontact)’사회를 가속화시켰으며 이는 온라인화를 넘어 O2O 기술 등을 통해 가상공간으로 확장되었다. 예) 미디어, 특히 온라인 비디오 소비 급증,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 사용, 화상통신을 이용한 원격교육, 온라인 요가, 요리강습 등.
 - 3) 본원적 가치를 보다 중시하게 되었다. 코로나 이후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반문하며 ‘건강, 안전, 생명, 환경, 행복, 가족’ 등 본원적 가치(Essential Value)를 중시하는 현상이 강화됐다.
 - 4) 개인주의가 강화되었다. 타인과 대면 시간이 줄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기중심적 ‘에고이즘(Egoism)’이 강화되었다.
 - 5) 자국 보호주의 무역과 민족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민족국가의 장벽이 높아졌다.

4.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시대가 선교에 미친 영향

2. 4차 산업 혁명과 코로나

2년동안 사회 격리의 상황속에서 전세계가 동시에 디지털 세계에서 사는 삶을 강제로 훈련받음

코로나 이전	코로나 기간
오프라인 쇼핑	온라인 쇼핑
오프라인 결제	온라인 결제
영화관	넷플릭스
식당	배달의 민족
현장 수업 및 강의	온라인 수업 및 강의
현장 회의, 의사소통	온라인 화상회의, 모임

인류 문명사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펜데믹은 기독교 선교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으로 기존 선교의 기반이었던 대면 접촉을 통한 관계 형성이 어려워졌다.

- 2) 코로나 이후 재정적 약화로 선교사에 대한 후원이 줄어들었으며 새로 파송 받아 나가는 선교사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3) 선교 지원의 약화로 해외선교보다는 국내 선교로, 혹은 교회 내 사역으로 전환될 것이다.
- 4) 중국, 인도 등 많은 나라로부터 선교사가 추방되었으며, 비자 발급 중지 등으로 유입이 어려워져, 선교사들의 철수와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 선교사가 감소되었다.
- 5) 과학과 인본주의를 중시하는 시각에서 절대자를 찾는 영적 각성도 일어나고 있다.(기독교 관련 서적의 매출 증대, 일부 교회에서 락다운 후 교회 출석자 증가)

5.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시대의 선교 방향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선교 정책을 필요로 한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시대의 선교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1) 전통적 대면 사역을 지양하고 정서적 지원과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는 인격적 대면 사역을 지향한다.

2) On-line과 Off-line를 통합하고, Locality(지역성)와 Globality(세계성)를 통합하며, Actuality(현실)와 Virtuality(가상)를 통합하는 전방위적 의사소통 혹은 온라인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3) 기존의 대면(Contact)에서 비대면(Untact)를 넘어 깊은 대면(Deeptact)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한다. 인간은 본디 대면적 존재다. 정보사회의 진전으로 언택트의 시간이 늘어났더라도 비대면이 대면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 편의중심의 원격방식을 추구하는 시대이지만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소외되고 단절된 상황 속에서 깊은 감정을 나누는 교감방식이 중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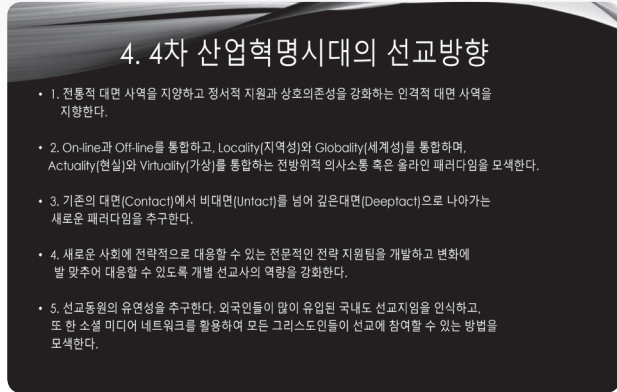
4) 새로운 사회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전략 지원팀을 개발하고 변화에 발맞추어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 선교사의 역량을 강화한다.

5) 선교동원의 유연성을 추구한다.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된 국내도 선교지임을 인식하고, 또한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6) 거점 선교(One Point Mission)와 현지인 주도 선교를 지향한다. 거점 방문으로 대면 접촉을 줄이고, 장기 선교 프로젝트는 현지인 선교사에게 이양하며, 온라인으로 현지인 선교사를 돕는 방안을 연구한다.

7)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사역 모델들을 전향적으로 연구·개발·전수하며 이런 모든 자료들을 통합한 웹사이트를 개발한다. 예) 비대면 기도 네트워크, 온라인 강의, 화상 회의, 화상 예배, 일대일 혹은 소그룹 모임 등

8) 교단 중심의 선교나 선교 단체 중심의 선교에서 연대하는 선교로 또한 현지 중심의 선교로 나아가야 한다.



6. 개별 사역지에서 실행 가능한 사역

국가	사역지 상황	가능한 사역 모델
독일	<p>난민 대부분이 인터넷과 왓츠앱 사용.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페이스북 광고와 유튜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음. 왓츠 앱을 통해 문자, 음성, 영상을 통해 접촉하고 있음.</p>	<p>페이스북 광고, 유튜브, 왓츠앱, Zoom 등</p>
세네갈	<p>세네갈 띠에스 주변 마을에는 전기공급이 간헐적이고 특히 주요 사역 대상인 아이들은 마을에서 어떤 에너지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센터에서 도서실과 토요학교 운영시 "유튜브"를 통해 구해진 자료(성경스토리, 찬양)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콘텐츠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집중도에 차이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또는 프랑스에 거점을 둔 콘텐츠 기획팀과 자료수집팀을 통해 빠르고 쉽게 자료를 수집하고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개발하게 함. • 세네갈, 한국, 프랑스의 각 팀은 "줌"을 통해 서로의 필요와 정보에 대한 논의를 하여 수집 개발된 자료를 선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함.
카자흐스탄	<p>외진 시골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서 인터넷 사용 가능하여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음. 특별히 코로나19이후로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됨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들이 개발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사역을 위해 교회내 주일학교 교사 및 기독교 유치원 교사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이해 및 활용방안을 위한 교육 • 청소년, 청년 사역을 위해 SQ강사 교육 및 청소년/청년대상 SQ교육 • 지교회 목회자 및 사역자들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이해 및 활용방안을 위한 교육(on-off 활용한 다양한 사역전략, 줌, 페이스북, 유튜브, 메타버스, SQ) • IT 전문 인력과의 협업
케냐	<p>대부분의 현지인은 준사막 지역에서 전기 없이 살아가는 상황임. 극히 일부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 휴대폰이 없음. 일부 스탭과 왓츠 앱을 통하여 음성통화, 문자 및 사진 전송 가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로 초청해서 SQ사역으로 전도 • 소수 리더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 실시 • 현재 사용 중인 왓츠앱 통한 사역 확대



IT 기술을 활용한 선교 방안

| 윤윤상, 주원장, 최근식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세계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국가 시스템, 경제, 기업, 교육, 문화, 종교 등 사회의 모든 영역과 삶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효과를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변화들을 가속화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교회 사역을 예로 들면, 각종 예배, 소그룹 모임, 성경공부, 헌금 등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활동들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고, 온라인과 디지털 기술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목회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되었다. 선교 현장에서도 건물이나 센터 등 오프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던 활동들은 중단되거나, 소규모로 진행된 반면, Zoom이나 SNS 등 온라인을 활용한 사역이 도입되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 사역자들은 그 유용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물론 선교 현장의 열악한 인터넷 상황은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본격적인 온라인 시대의 도래라는 시대적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며, 팬데믹 상황이 해소되더라도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기 보다는 오히려 온라인을 활용한 사역이 더욱 진행되고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인식 하에 소그룹 연구에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또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사이버 공간 등 발전된 정보기술(IT)을 선교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게 되었다. 온라인을 활용한 선교 사역의 장점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복음 사역을 펼칠 수 있고, 핏박으로 인해 직접 전도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온라인을 활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가상공간이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세대들을 대상으로 복음 사역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SNS 플랫폼들이 등장하여 전 세계인을 온라인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 페이스북 이용자는 세계 인구의 37%인 29.1억명에 달하고 있으며, 유튜브 이용자는 22.9억명에 달하고 있다. 왓츠앱(Whatsapp)은 20억명의 이용자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모두가 유용한 선교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페이스북(Facebook, Meta), 유튜브(Youtube), 그리고 새롭게 각광을 받는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을 한정하여 이를 활용한 선교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페이스북(Facebook=Meta)을 활용한 선교 방안

1. 페이스북 소개 및 현황

페이스북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서, 하버드대 학생이었던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가 2004년 2월 4일에 개설하였다. Facebook의 어원은 미국에서 학기가 시작될 때 친목을 다지기 위해 학생들의 얼굴과 프로필을 적어 공유 하던 책자의 이름에서 온 것이다. 처음에는 하버드 학생들만 이용하던 사이트였으나, 곧 이어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주변의 학교들로 영역이 확대되었다. 2005년 말에는 2,000개 이상의 대학과 25,000개 이상의 고등학교의 네트워크로 발전하였으며, 2006년 9월부터 일반 사용자들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2021.10.28)에는 메타버스 육성을 사업의 주요 목표로 정하고 회사명을 메타(Meta Platforms)로 변경하였다.

페이스북 이용자는 2021년 10월 현재, 29.1억명으로 세계 인구의 37%에 해당하며, 전 세계인의 3명중 1명은 페이스북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0년 전인 2011년 10월의 8억명에 비해 3배이상 성장한 것이다. 매일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인구도 19.3억명으로, 세계 인구의 4명 중에 한명은 매일 페이스북에 접속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페이스북은 개인 프로필을 공개하고 뉴스피드에 일상의 얘기나 정보들을 공유하며 개인 간의 친목과 소통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페이스북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삶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다면 친구와 친척, 아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그룹으로 활동할 수 있고, 심지어 오랫동안 소식이 끊긴 친구나 지인들을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해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다.

2. 선교의 도구로서 페이스북의 장점과 유의할 점

페이스북을 이용한 선교는 페이지의 광고 기능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페이스북이 개인의 의사 소통이 목적이라면, 페이지는 사람이 아닌 기업의 명칭이나 단체명으로 만들 수 있고, 광고 등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먼저 페이스북 개인 계정을 개설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으며, 페이지는 개인 계정과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1) 페이스북 광고를 활용한 선교의 장점

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성향을 분석한 타겟 접근 가능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 걸쳐 29.1억명에 달하는 방대한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행동과 성향을 데이터화하여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타겟 그룹을 정하여 복음을 광고하고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페이스북 회사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국적, 성별, 나이, 학력, 언어, 종교 등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정치성향, 구매성향, 인터넷 검색 등 관심사 정보를 활용하여, 타겟 그룹을 정하여 광고할 수 있다. 발표자의 사례를 거론하자면, '독일에 거주하는 아랍어 사용자로서, '행복', '진리', '사랑', '그리스도' 등을 검색한 18세 이상의 남녀를 타겟으로 광고를 진행한 적이 있다.

②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접근 가능

대면 접촉을 통한 선교 사역은 시간의 제약과 장소와 기후 등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선교 사역은 하루 24시간, 365일 쉼 없이, 국경과 장소를 초월하여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연결되어 있는 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계절, 날씨를 물론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국가적인 통제 상황에서도 선교를 지속할 수 있다.

③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보안 문제와 핍박을 우회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

이슬람권을 비롯하여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활동하는 복음 사역자는 신분 노출과 그에 따른 추방의 위협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보니 복음 전도에 소극적이 되고, 여러 활동들을 통해 관계를 맺고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기회가 올 때 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 현지인의 입장에서 전도자와 직접 대면하는 만남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만나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고, 어느 정도 핍박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전도와 양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④ 저작권 문제 등에 있어서 다른 온라인 플랫폼보다 유연함

광고를 원하는 복음 콘텐츠를 페이스북에 직접 업로드할 수도 있고, 유튜브에 업로드할 수도 있다. 유튜브는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해서 까다로운 저작권 규정을 적용하는데 비해, 페이스북은 저작권 등에 대해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곳에 홍보된 좋은 복음 콘텐츠나 영상을 복사하여 다시 광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2) 페이스북을 활용한 선교에서 유의할 점

① 회사의 정책 변경에 따른 종교적 광고 차단 가능성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점증하는 요구 때문에 최근 페이스북 회사는 사용자의 건강과 인종, 정치적 성향, 종교, 성적지향 정보를 기반으로 한 타겟 광고 기능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회사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페이스북 회사의 대처에 따라 페이지 광고를 활용한 선교 사역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② 반대자들의 댓글 공격과 개인 영상관리에 유의

온라인을 활용한 복음 선교의 현장도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되고 있다. 복음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댓글이나 메신저를 통해 저질스러운 악담과 음란물 등으로 공격을 해 오

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매일 많은 시간을 이러한 공격들을 처리하고 온라인 사역에 몰두하게 되면 개인의 영성 관리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팀으로 함께 사역하며, 대면 사역과 온라인 사역의 적절한 비중 조절이 요구된다.

③ 대면 접촉시에 보안과 신변 안전에 유의

복음에 대해 좋은 반응이 오고 몇 차례의 교제 후에 대면으로 만나게 될 경우에 사역자가 직접 만나는 것 보다는 현지 동역자나 그 지역의 현지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만나도록 하는 것이 사역자의 보안과 안전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복음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이 다른 도시나 국가에 거주하여 멀리 떨어져 있고 불순한 의도로 접근해 왔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방문하여 만나는 것에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페이스북 광고(페이지)를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1) 페이스북 계정이 없는 경우에 먼저 페이스북 개인 계정을 개설한다.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경우에 보안을 위해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먼저 페이스북 개인 계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인터넷 주소창에 www.facebook.com을 입력하거나, [페이스북]을 검색하여, 페이스북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 수 있다. 페이스북의 원래 계정과 페이지 계정은 독립적인 공간이므로 보안이 유지된다. 보안에 대해 염려가 있을 경우에 새로운 휴대폰



[자료 1] 페이스북 개인 계정을 개설

번호를 사용하여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미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역자는 곧바로 페이지를 개설하면 된다.

2)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한다.



[자료 2] 페이지를 개설하는 방법



[자료 3] '페이지 만들기' 입력



[자료 4] 완성된 페이지 계정

'프로필 사진'과 '커버 사진'을 추가한다([자료4]). 페이스 계정과 페이지를 위한 프로필 사진과 커버 사진들은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

페이스북 계정을 오픈하여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를 선택한 다음, '만들기'에서 "페이지"를 선택한다([자료2]). 페이지 만들기에서 요구하는 순서에 따라 '페이지 이름'을 지정하고, 페이지를 설명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추가한다([자료3]). 이메일,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3) 페이스북 페이지의 '광고관리자' 기능을 통해 타겟 광고를 세팅한다



[자료5] 페이지 광고관리자에서 광고 세팅

페이지에서 '광고' 메뉴를 클릭하거나, www.facebook.com/adsmagager/manage 링크의 '광고 관리자'를 통해 순서에 따라 타겟 광고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광고' 메뉴를 클릭하면 'แคม페인-광고세

트-광고'의 세 단계로 나뉘어 광고 만들기가 진행된다. 캠페인 목표는 광고의 목적을 의미하며, 크게 '인지도', '관심유도', '전환'으로 구분되어 11항목 가운데 하나를 정한다.

광고 세트에서 '상세 타게팅' 기능을 활용하여 대상자들의 위치, 연령, 성별, 관심사, 언어 등을 지정하고, 광고 기간과 예산 정보를 입력하면 타겟 광고가 완성된다. '결제' 기능에서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다. 광고 세팅을 마치고 실제로 광고할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업로드 하여 광고를 실행하게 되면, 페이스북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대상자를 최적화하여 광고를 노출하게 된다.

광고 이후에 '광고관리자' 기능을 통해 광고 노출 시간, 도달 횟수, 반응 등의 광고 성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광고를 관리할 수 있다. 페이스북 페이지 광고에 대해 지면 관계상 자세히 다루지 못한 부분은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구체적으로 배우고 시도하면 좋을 것이다.

III. 유튜브(Youtube)를 활용한 선교 방안

1. 유튜브의 태동과 현황

유튜브는 자베드 카림이페이팔(Paypal)에서 일하던 다른 두 명의 동료들과 함께 회사를 퇴사하여 2005년 2월에 설립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2006년 10월에 구글(Google)이 16억 5천만 달러의 금액을 들여 인수하였다. 오늘날 유튜브는 구글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검색 엔진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팔순 노

유튜브를 활용한 선교방안



유튜브의 태동과 현황

-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검색 엔진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 아이에서부터 팔순 노인까지 매월 23억명 이상의 사용자가 유튜브를 이용
- 2012년 이용자가 8억, 2021년 현재 23억 명으로 9년 사이에 약 3배

인에 이르기까지 매월 23억명 이상의 사용자가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15세에서 35세의 연령대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 매일 전 세계에서 1억 2천만명이 유튜브에 접속하여 10억 시간 분량의 콘텐츠를 시청하고, 1분당 500시간 분량의 새로운 콘텐츠들이 업로드되고 있다. 2012년에 실질적인 이용자가 8억이었는데, 2021년 현재 23억명으로 9년 사이에 약 3배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기독교적인 콘텐츠를 공유하는 유튜버와 유튜브 계정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사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잘잘법 : 잘 믿고 잘 사는 법
- ② 성경공방 : 말씀과 서적, 선교 역사, 삶의 이야기
- ③ The Bible Project / BibleProject - Korean / Bible Project - français
- ④ 존 파이퍼 Desiring God : 설교, 라디오, 강의, 간증, Q & A
- ⑤ 존 맥아더 Grace to You : 설교, 강의

2. 유튜브를 활용한 선교에 있어서 두 가지 방향성

유튜브를 활용한 선교의 두 가지 방향성을 살펴본다면, 첫째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접하기 쉬운 흥미로운 기독교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다. 그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방향을 따르면, 성공적인 유튜브 선교는 좋은 동영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여, 구독자와 시청자 수가 많고, 그들 중에 기독교 콘텐츠에 관심을 갖는 자를 나오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독교인이 아니거는 별 관심이 없는 선교적 콘텐츠를 보게 만드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다. 일반인들은 매월 돈을 수십, 수백만원씩 사용하며, 돈을 벌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는데,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 개인이 적은 후원금과 무경험으로 다른 채널들과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IT 전문가와의 팀 사역을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이미 그리스도인이거나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 콘텐츠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는 수년간 진행하는 ‘Ask Piper John’을 통해 구독자들이 질문하는 기독교에 관련된 질문들을 간결하고 지혜롭게 답해준다. 두 번째 접근의 장점은 미국이나 한국의 상황과는 달리, 선교지에는 정통 기독교 신학을 가르치거나 전도를 위한 채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 목사나 선교사들이 이런 콘텐츠를 지

속적으로 만들게 되면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자기가 잘하는 것을 극대화 시키고, 전문가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승리할 수 있다. 즉 비디오는 비디오 전문가에게, 음향은 음향전문가에게 맡기고, 목사나 선교사들은 복음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를 강구하면 승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전문성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영혼에게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에 목숨을 건다면 사랑의 주님께서 그의 양들로 목자의 그 선한 목소리를 듣게 하실 것이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그 복음이 준비된 영혼들에게 역사했던 사실들로 가득하다. 우리 역시 복음에 가슴이 벅차올라 선교지에 간 것이니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 자체의 능력을 믿으며 이제 온라인 시대를 맞아 복음 전파의 새로운 도구가 된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3. 유튜브를 활용한 선교의 방법과 결과

유튜브를 활용한 사역을 위해서는 젊은이의 전문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10대 후반 청소년들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용하고, 영상의 타이틀은 어떻게 적어야 효과적인지, 색 보정은 어떤 분위기로 해야 좋은지 알고 있다. 이들에게는 좋은 비디오 하나 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젊은이들과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이다

만약 양질의 동영상을 10분내의 분량으로 꾸준히, 오랫동안 올리게 된다면 결국엔 채널이 알려질 것이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인터넷이 주는 장점이다. 발표자도 7~8년 전에 업로드된 설교 영상들을 자주 보게 된다. 이러한 유튜브 영상은 반영구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일회성의 설교보다도 오래 지속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높은 품질에 대한 집착과 품질에 대한 완전한 무시라는 양극단이다. 첫째는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둘째는 아무도 보고 싶지 않은 영상을 만들 수도 있다. 균형을 잘 맞춰야하고 지나치지 않은 선에서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유튜브 선교의 결과를 즉시 기대하거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은 어렵다. 성공적인 유튜브

버들이 많고,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자하고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채널들이 많은데 그들보다 인기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많은 기독교, 선교 채널이 존재하고, 계속해서 생겨나는 중에 있는데 엄청난 결과를 보는 채널은 거의 없다. 선교사 개인으로는 다른 채널들과 경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이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회나 외부 협력 그룹을 형성하고 선교사는 현장의 생생한 콘텐츠 자료들을 수집하고 외부 협력 그룹들이 그 자료들을 받아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현지어로 하는 기독교 방송은 더 눈에 띄기 쉽고,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5년,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들이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듣게 되는 채널, 또는 갓 믿게 된 누군가의 질문과 궁금증을 해소해줄 채널, 또는 이미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자에게 신학적 틀을 더욱 강건하게 해줄 채널들이 선교지의 언어로 생겨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실로 대단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유튜브를 활용한 선교에 있어서 유의할 점

무엇이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왜 하는가?'에 대한 답을 알아야 한다. 왜 유튜브를 활용하는 선교를 하는가? 성공적인 유튜브 선교는 어떤 모습인가? 성공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성공하기까지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유튜브 선교 역시 다른 선교 방법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유튜브를 통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성화와 제자 됨의 삶으로 이끄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와 경쟁하여 사람들의 시간과 관심을 끌어내려는 노력 가운데 많은 사역자들은 사회와의 경쟁, 즉 사회보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고, 스티플 있고, 만족감 있는 이벤트들을 창조해 내는데 힘을 쓰고 있다.

그런데 사역자는 자신의 전문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 스타벅스는 운동복으로 나이키를 이길 수 없고, 나이키는 노트북으로 애플을 이길 수 없다. 스타벅스는 커피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팔아 경쟁에서 승리하고, 나이키는 운동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애플은 노트북과 태블릿, 핸드폰을 마케팅해 승리한다. 교회는 엔터테인먼트로 사회를 이길 수 없다. 수련회를 재미있는 곳으로 홍보해서는 에버랜드와 넷플릭스를 이길 수 없다. 수련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적게 올 수 있지만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친구들이 새 삶을 얻고, 성화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 곳이 될 수 있다.

교회는 사회보다 모든 것을 잘하고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곳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곳임을 인식하고, 교회와 사역자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좋은 복음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이 관건이다.

IV.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선교 방안

1.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



IV. 메타버스를 활용한 선교 방안
1.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
메타버스(Metaverse) = 가상(META) + 우주(UNIVERSE)

2022-05-28

‘메타버스(Metaverse)’란 ‘가상(Meta)’과 ‘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 ‘닐 스티븐슨’의 1992년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다. 보통 가상현실이라고 하면 대부분 게임을 떠올리곤 하지만, 메타버스 속에서는 나만의 아바타가 나 자신을 대신하여 게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까지 가능하다. 즉 단순한 소통을 넘어 업무와 소비활동까지도 가능한 플랫폼인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이 된 지금, 전 세계는 경제, 산업, 문화, 예술,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페이스북,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거대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앞 다투어 투자하고 있다.

메타버스의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① 소통(Communication) : 현실세계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속에서 사람들은 나이, 성별, 직업

등에 차별 없이 자신과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현실 공간을 초월해서 만나고 소통한다.

- ② 경험(Experience) : 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MZ 세대는 단순한 소비보다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한다. 자신이 원하는 아바타를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자신의 취향을 따라 선택하고 경험하기를 원한다.
- ③ 연결(Connect) : 코로나19는 단절된 환경 속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결을 가속화시켰다.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모든 세상이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가 되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기, 기기와 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다음과 같다.

- ① 로블록스(Roblox) : 2006년 미국에서 출시된 게임으로, 약 2억 6천만명의 이용자가 있다.
- ② 제페토(Zepeto) : 2018년 한국 네이버가 출시하였고, 2억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다.
- ③ 마인크래프트(Minecraft) : 2011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출시한 게임으로, 평균 이용자 수가 1억~1억5천명에 달한다.
- ④ 포트나이트(Fortnite) : 2017년 에픽게임즈사가 출시하였고, 8천 10만명의 사용자가 있다.
- ⑤ 게더타운(Gathertown) : 2020년 미국에서 출시되었으며, 400만명 이상이 사용중인 메타버스 상의 화상회의 플랫폼이다.

2.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회 사역 사례

- ① 2021년 6월 23일,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는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행사를 메타버스 상에서 개최했다
- ② 2021년 4월, 파이어우드사는 부활절 기념 성찬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③ 2021년 6월 28일, 한국 대학생 선교회(CCC, 박성민 목사)는 수련회를 게더타운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최하였다.
- ④ 2021년 10월 9일, 소망교회는 랜선나무심기 대회를 메타버스 안에서 선교지 6개국을 연결하여 개최하였다.
- ⑤ 2018년, 미국 LA의 DJ 소토목사는 벽 없는 가상현실 교회(VR Church)를 시작하였다.

이 외에도 혜성교회, EMT선교회 등 여러 단체에서 메타버스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최초의 메타버스 관련 기독교 서적이 '메타버스 교회학교'인 것을 보면 메타버스 사역의 대상은 주로 MZ세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3. 선교 사역에 있어서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방안들

네이버가 2018년 8월 제페토를 출시한 이후, 2021년 2월 기준 제페토 가입자 수는 2억명을 돌파했다. 게다가 제페토 전체 서비스 이용자의 90%는 한국이 아닌 해외 이용자이고, 연령대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이용자의 80%가 10대이다. 앞으로도 기술이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고 사용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현재는 10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에 적합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앞으로 5년~10년 후에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청년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사역이 가능할 것이고, 줌(zoom)처럼 일상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메타버스 세상에 몰려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사역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선교 현장에서도 한국 교회들처럼 메타버스를 활용한 어린이 연합 성경학교나 청소년 연합 수련회 및 청년 연합수련회를 시도할 수 있을 것 같다. 특별히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경을 넘어 다니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메타버스 상에서 여러 크고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수련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어린이, 청소년, 청년 심리 상담실을 메타버스 상에 상설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교지에는 역기능 가정이 많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폭력과 위기상황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반면 그들이 스스로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거의 불가능한데, 메타버스에 상설 상담실을 운영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다음세대 사역, 메타버스에 올라타라!

최고의 전문가가 교회학교의 미래와 전략, 대안을 제시한다.
메타버스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서 교회학교 사역의 선두주자가 되라.

이 책은 변화의 시대에 교회학교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과 시대 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프로그램 구체적인 노하우를 제시한다. 특히 마지막 장에 나오는 메타버스 교회학교 실천 매뉴얼을 현장에 적용하면 분명 새로운 희망과 마주할 것이다.

김성중 목사(장신대학교 교수, 기독교교육리더십연구소 소장)

이제 다음세대는 메타버스 안에서 공부하고, 교제하고, 개성하며, 창의 활동을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메타버스 안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팬데믹과 함께 교회학교는 이미 온라인 세상으로 옮겨 왔다. 이러한 때에 두 책사님의 책을 발간하는 시점은 다음세대 사역의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다.

주경훈 목사(사신교회) / 장인환(아베 소망) / 김 모인희 (동천교회), 이 차지

이 책은 생산한 메타버스의 개념을 쉽고 친근하게 설명하고, 어떻게 느껴질 수 있는 가상공간의 사역을 이미 현장에서 증명된 내용으로 안내해 주는 친구 같은 지침서다. 메타버스의 핵심을 알고 있으며, 잘 배워서 사역에 적용할 실질적인 법이 가득하다.

김번 리 목사(미국 새생명교회) / 장인환(아베 소망) / 장인환(사역) 부혜, 이 차지

코로나19는 온 인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가장 큰 승격을 받은 것은 교회학교와 다음세대 사역이다. 이번 혼란의 시기에 다음세대 사역의 대안을 가장 치명하게 고민해 온 두 필자가 드디어 그 결과를 세상에 내놓았다. 책장을 넘기며 새로운 시대의 멋진 경향에 동참하길 바란다.

전정호 목사(다음세대교회) 장인환(아베)

메타버스 시대의 교회학교 실천 매뉴얼 40

메타버스 교회학교

김혜분, 조민철 지음

있고, 상담과 함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메타버스 교회도 운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예배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성경 이야기와 관련된 재미있는 그룹 놀이와 게임을 하고, 관심 분야별 토의도 하며, 예배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창의적인 예배를 개발해 볼 수 있고, 신앙생활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곳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선교지를 탐방하거나, 선교지 사이에 네트워크를 만들어 창의적인 여러 시도들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예상되는 문제점

현재 Zoom의 화상회의 방식은 ‘Zoom 피로증후군(Zoom Fatigue)’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주고 피로감을 많이 주기도 한다. 또한 2차원적인 평면 화면으로 보며 화상 회의에 참가하기 때문에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다. 메타버스 세상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또한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돈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메타버스에 오랜 시간 머물고 있어야 메타버스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메타버스 세계에 있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선교사가 영성관리하며 실제 영혼들을 대면으로 만나고 섬겨야 하는 사역의 균형이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가상세계에서의 사역을 신학적으로 어느 선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예상되는 문제점

- 현실과의 혼돈
- 장시간 메타버스 세계에 머물러야 함
- 사역의 균형이 깨질 수 있음
- 신학적 고민과 과제
- 개인이 하기 어려움

2022-05-28

그리고 결국 이러한 메타버스 사역의 장은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 구성되어 사역해야 할 것이다.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역팀과 실제 메타버스 상의 사람들을 교대로 만나고 상담하는 필드 사역팀, 그리고 필요한 재정과 인적 자원들을 공급해주고 백업해주는 관리팀이 필요하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해야하는 사역이지만 개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라는 사이버 세상은 이미 열렸고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단은 이미 메타버스 세상을 선점하려고 많은 공격적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메타버스 세계가 사단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복음의 깃발을 들고 과감히 뛰어들어야 할 것이다.

V. 맺는 말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선교 현장에서도 본격적인 온라인 시대를 맞이하여 IT 기술을 활용한 선교 전략이 중요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북, 유튜브, 메타버스를 특정하여 그것들을 활용한 선교 방안과 장단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페이스북은 가장 많은 이용자수를 보유하고 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타겟을 정하여 관심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점을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유튜브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자,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검색 서비스로서 이용자 수와 접근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메타버스는 새롭게 부상하는 3차원적인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MZ세대를 공략하는 의미에서도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유의해야 할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선교 전략은 앞으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복음 전도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려면 양질의 복음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실제로 광고의 성과는 콘텐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양질의 복음 콘텐츠 개발은 한 개인으로서 역부족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선교사와 IT 전문가, 현지인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고, 지역이나 언어권별로 온라인 사역을 함께 펼쳐나가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좇아

| 이세영 선교사(FMB/일본)



1. 소명

“너는 내 것이라”

38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뒹다. 인생의 진로에 대해 깊이 변민했던 시기, 대학·청년부에 올라가자마자 참석했던 동계 수련회에서 난생 처음 하나님을 만났다. 그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 두려움, 절박감에 사로잡혀 참석했던 수련회였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에 다녔고, 중학생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있지만, 내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막연한 존재에 불과했다. 마지막 폐회 예배 때다. 찬송가(18519장)를 부르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마음을 환히 비추더니,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깨달음이 온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다. 4절이 모두 끝날 때까지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해도 진정할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직 흥분이 가시지 않은 상태로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자리에 앉



아 주보를 펴는 순간, 온 몸이 감전된 것 같았다. “너는 내 것이라!”(사43:1) 그날 설교 제목이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말씀이었다. 주님의 눈동자가 온통 나만을 향하고 있는 것 같은 감격이 온 몸을 감쌌다. 마음에 기쁨과 사랑이 샘물처럼 솟아났고, 세상 만물이 새롭고 아름답게 보였다. 한 동안 주님으로 마음이 꽉 차고 행복하니, 세상에 대한 모든 욕망과 염려가 사라졌다. 바울처럼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열망하고 동경하게 되었다. 마침내 1986년 여름수련회에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선교사로 헌신했다. 이렇게 주님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 주셨다.

일본으로의 부르심

1989년 개척을 준비하고 계셨던 대학·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갑자기 일본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그때 나는 전역을 앞두고 제대 후의 진로에 대해 기도 중이었다. 목사님께서 일본으로 떠나시기 전, 함께 사역하자고 권유하셨다. 목사님이 그러했듯이 나 역시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본 선교였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으로 여겨졌다. 문제는 바로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신학 공부하며 목사님의 사역을 도울 것인지,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준비해서 갈 것 인지였다. 어느 날, 금요 철야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성경을 펴는데 이사야서 40장이었다. 말씀을 죽 읽어 내려가는데 유난히 ‘섬’이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다(41:1,5). 그리고 “내가 불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42:1,4)를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다. 섬나라인 일본으로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이듬해 청년부의 리더로 함께 섬겼던 자매의 신학교 졸업식에 맞춰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3월 초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2. 오사카 한인 교회 시절

나는 5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회 사역을 도왔다. 주로 유학생 및 청년들을 섬겼는데, 청년 리더들을 위한 성경공부에는 멀리 교토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들도 참석했다. 그들의 요청으로 직접 교토에 있



는 기숙사를 방문해 성경공부를 인도하기도 하고, 그들이 교제하고 있는 일본 학생들과 함께 캠퍼스 선교를 위해 대학교 내에 교제 모임을 만들어 지원하기도 했다. 이렇게 오사카에 정착해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내 신앙과 사역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 있었다. '하나님나라'와의 만남이었다. 성서 유니온 선교회의 초대 총무였던 윤중하 장로의 성경강해 테이프를 통해서였다. 성경에 대해 눈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했다. 초보적이지만 성경 전체와 복음을 하나님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함을 깨달았다. 한국의 모교회 시절부터 고민해 왔던 교회와 신앙의 본질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과 문제 의식을 갖게 되었다.

한편 교회 안에는 유흥가에서 일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았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면서도 좀처럼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기구한 사연과 아픔을 가진 분들이었다. 버블 경제가 붕괴되면서 그들의 삶은 더욱 곤란한 상황으로 내몰렸고, 교회안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생겼다. 교회 주변에는 노숙자들이 늘어났다. 우리 부부는 교회 안팎의 이러한 분들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며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섬겼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점점 피폐해져 갔다. '일본인' 선교를 위해 신학을 더 공부하며 준비하고 싶은 갈망이 날로 커져갔다. 때마침 주님께서 환경을 열어 주셨다. 그래서 만8년 동안의 오사카 생활을 정리하고, 침신대 목회신학대학원 입학 을 위해 고국으로 돌아왔다.

3. 대전에서의 준비와 사카이 영광교회로의 파송

신대원 3년 동안 박영철 교수님을 통해 교회의 본질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하며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단지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막 소개되던 셀 교회, 가정 교회들을 통해 어떻게 교회 본질을 구현할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어느 덧 신대원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2001년 1월, 전에 오사카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일본인 교회로 옮긴 집사님의 초대로 가족이 모두 일본을 방문했다. 집사님의 소개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만났다. “교회는 지금 혈관이 막힌 것 같은 정체 상태로 새로운 피, 활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당시 일본 목사님이 첫 대면한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다. 창립 20년 된 교회의 4대 목사로 부임해서 10년간 목회해 왔지만,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절박한 호소였다. 내가 추구하는 교회와 사역을 함께 하자며 협력선교사로 청빙 의사를 밝히셨다. 그리고 2월 교회의 정기총회 때, 우리를 초청하는 문제가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세계선교훈련원에 입소해 장기 선교사 훈련을 수료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2002년 1월 31일 사카이 영광교회로 파송되었다.

4. 사카이 영광 교회의 협력 선교사 시절

순조로운 적응과 한국식(?) 섬김



우리가 사역하게 된 사카이 영광교회는 70여 년의 전통을 가진 일본 예수 그리스도 교단에 소속된 교회이다. 영국 성공회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목사들이 세운 보수적인 교단으로 130여 개의 교회가 있다.

유명한 전도자들을 다수 배출한 일본에서는 큰 교단에 속한다.

청빙 당시에는 몰랐지만, 길지 않은 교회 역사가운데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교회 창립 14년만에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46세의 젊은 나이로 소천하신 일, 신자들 중에 선출된 역원들이 남은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을 보살피며 교회를 지켜온 일, 두 분의 목회자가 부임해 왔지만 역원들과의 불화로 사임하고, 그 과정에서 교인들 일부가 교회를 떠난 일, 나에게 협력을 요청한 목사님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역원들과의 관계가 악화돼 서로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사실 등등.

이러한 일본교회에서 새롭게 배우고 적응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우리 부부는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몸소 보여주는 일에 힘썼다. 교인들을 초청해 한국식으로 집들이도 하고, 우리 가정을 오픈해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일에 주력했다. 대학생 및 청소년들은 매주 주일 저녁에, 목사님과 역원들은 매달 부부 동반으로 초대해 식사교제를 가졌다. 그 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인들이나 독거노인 분들을 방문해 말벗이 되어주며 신앙적으로 격려했다. 한편으로는 이 교회에 정착한 한국인과 청소년들의 소그룹을 만들어 매주 신앙과 교회의 본질에 대해 나누기 시작했다. 이렇게 4,5년 동안 꾸준히 섬기자 교회에 활기가 돌았다. 담임목사님과 역원들의 관계도 호전되었다. 모든 교인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도 받게 되었다. 여기서 배운 게 있다. 주님이 본을 보이신 '사랑'은 국적과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 모든 사람에게 통한다는 사실이다.

예배 참가자가 늘면서 예배당(사택이 딸린 30평) 공간이 비좁게 되었다. 그래서 270평 대지에 3층 건물의 새 예배당을 건축했다. 우리가 부임한지 5년 만의 일이다. 문제가 많은 교회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런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자 교단의 목사님이나 주변 교회의 목사님들로부터 우리에게 대한 좋은 평판의 소리가 들려왔다. 교단에 가입하라는 권유도 받았다. 그러나 침례교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자유롭게 사역하기 위해 정중히 사양했다. 사실 나는 예배당 건축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 힘써왔는데, 교회의 관심과 에너지가 온통 예배당 건물에 쏠리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목회 전면에!

일본교회 안에 자주 회자되는 말이 있다. “새신자의 평균 수명은 3년이다.” 예수를 믿은 지 3년 지나면 교회생활을 그만 둔다는 것이다. 또 하나 “데모크리”라는 말이 있다. “소레데모 크리스천?”(그런데도 크리스천이야?)의 줄임 말이다. 사는 것을 보니까 전혀 크리스천 같지 않다는 것이다. 전체 개신교인 60만 명(인구의 0.4%) 중에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30만 명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말이 유행한다는 것은 일본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보여준다. 성경 및 신앙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드물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신자들이 관념적, 주관적 신앙에 머물러 있고, 건강이나 물질 등 현세적 문제에 매여 있다. 사카이 영광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새 예배당으로 이전한 후, 나는 먼저 담당하고 있던 청년, 대학생들 중에 4명의 리더를 뽑아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했다. 그리고 15명가량의 청소년, 대학생들을 3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그들에게 책임지고 돌보도록 했다. 하나님나라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의

줄거리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배워 나가자, 스스로 개인 스케줄을 조정해 열심히 참여했다. 이렇게 청년 리더들의 훈련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무렵, 교회에 중대한 일이 발생했다. 담임목사님이 교단에 사임(임지 이동)을 요청한 것이다. 1억 5천만엔의 빚을 내서 새 예배당으로 이전한 지 1년밖에 안 된 상황이었다. 게다가 후임자로 내정된 목사님은 교단의 행정 책임자로서 임기가 아직 1년이나 남아있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후임 목사님이 주일예배만 인도하고, 나머지 목회는 내가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난처했다. 그러나 교인들이 동요하고 교회의 앞날에 대해 염려하고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교회 안에 불안과 위기감이 감도는 비상 상황에서 내가 목회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나는 1년 동안 성경공부, 기도, 교제 모임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청년 리더들에 이어, 부인회 성경공부도 시작했다. 또 부인회 리더들과 함께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시키는데 힘썼다. 교회 안에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주님의 은혜와 활기가 넘쳤다. 특별히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 왔다. 이 기간 동안 주일 예배자가 평균 10명 이상이나 늘었다. 1년 후 담임목사님이 완전히 부임해 왔다. 그런데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이였다. 게다가 사모님은 조울증을 앓고 있어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다. 교인들이 목사님 부부를 걱정하는 상황이었다. 목회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인 목회를 우리 부부가 계속 감당해야 했다. 부인회의 요청으로 매주 「매일성경」(성서유니온)을 번역해 교인들의 건전한 성경이해와 신앙생활을 지원했다. 또한 성경공부에 계속 매진했다. 왜곡된 성경 이해가 왜곡된 신앙, 왜곡된 교회를 낳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또한 교회에 대한 역원들의 어긋난 주인의식과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권위가 성경 말씀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의 영적 싸움은 진리의 싸움이였다. 혼신의 힘을 다해 필요한 교재를 만들고 번역해 교인들을 가르쳤다.

한편, 청년, 대학생들에게 기도와 전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가스펠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전도를 목적으로 한 라이브 콘서트 형식이었는데,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처음 시도해 보는 일이라, 준비하는 리더들이 무척 고생했지만 결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80명 가까이 모였고, 그 중에 미신자가 30명가량 되었다. 교회와 복음에 대해 아주 호감을 갖게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았다. 결과에 대해 큰 보람을 느끼고 동기부여가 되어, 매년 교회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았다. 이렇게 훈련받은 청년들 중에 헌신자도 나오고, 안정된 의사 생활을 잠시 접고, 주님을 위해 보다 의미있는 길을 찾기 위해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유학중인 청년도 있다. 중고등 학생 시절부터 섬겨 온 아이들이 어느 덧 사회인이 되어 나름대로 크리스천의 가치를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소그룹 교제 모임에도 진전이 있었다. 교회의 핵심 봉사자들인 부인회 자매들과 청년들 중심으로 진행되던 교제 모임을 전교인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교인들 전체를 8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매주 예배 후에 바로 30-40분 정도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매달 리더 모임을 갖고 역원들과 소그룹 리더들이 함께 교회 행사나 사역을 논의했다. 거기서 리더들의 보고를 통해 각 교인들의 사정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새로운 목회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교회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기본 틀이 세워진 것은, 전통적 일본교회에서는 보기 드문 획기적인 일이었다.

세 번째 담임목사와 함께

이렇게 사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결국 담임목사님은 5년만에 사임했고,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왔다. 그는 내 권유를 받아들여 소그룹 리더 및 역원 모임을 목회의 중심으로 삼았다. 단지 사역을 논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리더들의 교제의 장으로 삼았다. 우리가 그 동안 여기저기 상처 나고 멍들면서 토양작업 해온 것을 잘 정착시켰다.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교회의 장기 비전도 세우고, 사명선언문도 만들어 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리더들에 대해 목회를 위한 사무적인 관계에만 머무를 뿐, 실제적인 공동체 관계와 교제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했다. 대부분의 일본 교회가 그렇듯이, 주일 날 한 번 얼굴보는 ‘편안한 관계’에 머물러 있었다. 전체적인 밑그림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는데 답답했다. 내가 너무 나서면 담임목사의 리더십이 위축될 수 있어 그러지도 못하고, 선교사가 터줏대감처럼 그냥 있는 것도 시간이 갈수록 부담스러워졌다. 결국 우리 역할은 여기 까지라는 판단에 사임을 결정했다. 2019년 3월 실제로 사임할 때까지 2년여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사카이영광 교회와 계속 교제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17년 동안의 협력 사역을 마쳤다.

5. 개척교회 시절

안정된 길 vs 광야 길

사임을 결정한 후, 보수 침례교단에 소속된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청빙을 받았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을 것 같은 안정적인 환경, 선교사로서 보람과 가시적 실적이 기대되는 폭넓은 사역 등 우리의 밝은 미래가 보장된 사역지였다. 마음의 갈등이 컸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히메지(姫路)에 교회를 개척하는 길을 선택했다. 히메지(姫路)는 사카이영광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나라와 교회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헌신해 온 이토오 자매의 친정이 있는 곳이다. 그는 남편과 함께 2016년 4월부터 부모님을 간병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으셨고 아버지도 돌봄이 필요한 치매 환자였기 때문이다. 이토오 자매의 인도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머니의 병세가 기적적으로 호전되었다. 결국 이토오 상 부부는 부모님의 간병을 위해 히메지(姫路)에 발이 묶이게 됐다. 어머니가 그리 오래 살지 못하실 것이라고 예상해서 잠시 약국 문을 닫고 시작한 간병인데 말이다. 사카이까지 2시간 걸리는 곳에서 매주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이토오 상 부부를 뒤로 하고, 눈 앞의 안정된 사역지로 떠날 수가 없었다.

개척 준비와 교회 창립

막상 개척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니 눈 앞이 캄캄했다. 재정적인 문제를 비롯해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니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했다. 게다가 개척 멤버 5명 중에 이토오 자매 남편과 어머니는 교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어머니는 이토오 자매와, 남편은 나와 개인적으로 성경공부한 것이 전부다.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야 할 지 난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캄캄한 앞 날에 하나의 길이 보였다. 계시록 말씀을 통해 어린 양 예수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며(14:4), 그 길은 어린 양 예수와 운명을 같이 하는 ‘십자가의 길’이었다(11:1-12). 일단 개척할 교회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과 길이 보이니까 좀 살 것 같았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어린양 공동체 교



회」로 정했다. 우리가 추구할 핵심 가치를 요약한 사명선언문도 만들었다. “우리는 어린양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고, 모든 사람을 주의 제자로 삼는 사명을 완수한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 히메지(姫路)에도 분명히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격려를 받았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그림을 갖고 5명에서 6개월간 준비모임을 가졌다. 마침 이토오 자매 아버지 소유의 50년 넘은 빈 건물이 있어서 사택과 예배실을 임대했다. 드디어 2019년 4월 7일 창립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준비모임을 가지는 동안 침례 교육을 받은 어머니와 이토오 형제는 첫 부활주일에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어린양 공동체 교회」가 시작됐다.

과분한 주님의 은혜

두 가정 5명 밖에 안 되었지만, 개척에 대한 두려움은 오랫동안 꿈꾸어 왔던 교회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매일성경」본문에 따라 개인 묵상 및 새벽 기도회, 수요일 성경공부, 주일예배를 진행하고 맥체인 성경읽기표를 사용해 성경통독을 했다. 3년 동안 성경66권 중에 34권을 공부하고 설교했다.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십자가의 길”만이,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라는 것, 또 그 십자가의 삶만이 우리의 영생의 길이며, 승리의 길이며,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전교인이(!!!) 확인하고 공감하고 확신하게 된 시간이었으며, 눈 앞이 캄캄했던 개척준비 당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진짜’라고 확신시켜 주신 3년간이었다.

한편, 주님께서 Word of Life Japan 소속의 미국 선교사들과 스테프, 영어성경학교 학생들을 보내 주셨다. 우리 교회 개척 준비와 같은 시기에 나가노의 유명한 휴양지 가루 이자와에서 히메지로 이주한 단체이다. 교회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이었는데도 서로 전혀 모르고 지냈다. 그런데 코로나 감염증 확산 때문에 각 교회가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시기인 2020년 8월 초, 선교사 두 명과 일본인 자매 한 명이 예배에 참석한 것이다. 40대 중반의 자매는 인생의 깊은 상실감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선교단체에서 개설한 영어카페, 영어성경학교에 참가하면서 처음으로 기독교를 접한 자매다. 그렇게 처음 만났는데 두 선교사와 함께 계속 주일예배에 참석하더니 몇 주 지나 수요 성경공부에도 참석하는 것이었다.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말씀을 듣고 배우더니 4개월 후 침례를 받았다. 히메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는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이었다. (그의 영향을 받은 남편도 작년 12월부터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며, 나와 구도자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그 뒤로 이 선교단체에서 평균 4-5명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주님 안에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 작년 7월에는 영어성경학교 재학생들의 여름 미니스트리가 우리 교회에서 열렸다. 처음으로 함께 협력한 의미 있는 사역이었다. 또한 근래에 미국 선교사들과 학생들로부터 성경이해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좋은 평판을 듣고 있는데, 그들을 잘 섬기는 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선교 사역임을 새롭게 깨닫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 감염증으로 전세계가 난리 난 상황에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예기치 못한 주님의 과분한 은혜를 누려왔다.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나의 소명으로 인식하고 여기까지 왔다. 일본에서 가장 바람직한 선교는 복음의 회복을 통해 주님의 본을 따르는 “사랑의 공동체”(요 13:34-35)라고 믿고 쉽 없이 달려왔다. 때로는 내세울 만한 실적이 없어 자기 연민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자기를 설득하며 여기까지 왔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 일본 땅에 복음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며, 하나님나라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그 동안 걸어온 광야 길을 돌아보면, 허물 많은 나에 대해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격려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주신 임마누엘 주님이 보인다. 주님의 영광스런 교회와 하나님나라를 꿈꾸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린다. 또한 우리의 광야 길을 묵묵히 사랑과 기도로 동행해 주시고, 만나와 생수 같은 격려와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후원자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남긴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기대합니다.

● 박아름 (32기 훈련생)

저는 9년 동안 사역자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에게 편안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입히고 먹이는 엄마의 삶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 켠에 남편의 소명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타이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원주민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했습니다. 제게도 소명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어느새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된 건 아닐까,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물어봤는데, 내심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런 결정을 내렸지만, 다행히 인선 서류 내는 기간과 맞아 떨어져 서류 제출부터 면접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고, 2022년 장·단기 훈련에 입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차에 짐을 한가득 싣고 부산에서 출발해 WMTC에 도착한 날이 기억납니다. 아무도 없는 숙소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거실에서 마음껏 뛰어도 뭐라 할 사람이 없고, 넓은 주차장을 이곳 저곳 누비고 다니는 아이들도 훈련원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입소 전까지만 해도 훈련 받기로 한 결정이 잘한 선택일까 고민했는데,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12주 훈련 과정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하는 설교자를 위한 Q.T는 부담이 컸습니다. 짧은 시간에 주제와 대지를 잡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묵상이 깊어지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전파 계획이 완성되어 감을 볼 때 '사람의 연약함이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



님은 결국 승리하시는구나,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원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훈련생들이 묵상한 내용을 들으며, 다양한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게 놀라웠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의 선교 여정 속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담대함을 얻는가 하면, 다른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작은 조각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을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희 부부는 선교지에 나가서도 설교자를 위한 QT를 계속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매일 새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위로부터 채워진 은혜를 그 땅에 흘려보내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훈련 과정 중 여러 나라의 선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첫째는 확실한 소명을 가져야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단 겁니다. 부원장님께서서는 뚜렷한 소명이 없으면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선교 현장이 낭만적인 곳은 아니며, 확실한 소명이 없으면 끝까지 버티기 힘든 곳 같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성령님과 동역하는 자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일하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영성이 무장되어 있을 때 가능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 전략도 필요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제공되는 영양분으로 선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었어.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 내가 힘써 할 일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야.'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아무도 감독해주지 않고 보는 이 하나 없지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길 기대해 봅니다.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아이들(로이, 이레)에게도 12주의 시간은 신나고 재미있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 후다닥 옷을 갈아입고 공동 거실로 뛰어가기 바쁩니다. 형, 누나와 함께 밖으로 나가 캠퍼스 축구장을 누비고 오고, 뽀기로 얻은 장난감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뽀양던 얼굴이 검게 그을린 모습을 보며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진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훈련원에서의 시간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훈련 끝자락에 소감문을 쓰면서 이곳에서 있었던 시간을 되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소중한 것 같습니다. 훈련 오기 전에는 오랜 시간 느꼈던 외로움으로 인해 묵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풍성한 섬김을 받으면서 마음속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상담 시간에 교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성경을 우위에 두고 말씀으로 제 마음을 비추면 왜곡된 자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아로 회복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수료식이 끝나면 동기들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선교의 구체적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다시 보게 될지 기약할 수 없지만 32기 동기들 모두 인성과 영성을 겸비한 멋진 선교사가 되어 MUT 훈련에서 만나길 기대합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12주 동안 알찬 커리큘럼으로 영성과 지성이 채워지는 경험을 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팀을 통해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른 아침부터 Q.T로 섬겨주신 부원장님& 이영임 사모님,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차지혜 실장님 & 김사랑 간사님, 꿀 같은 팁을 대량 방출해주신 하충만 간사님과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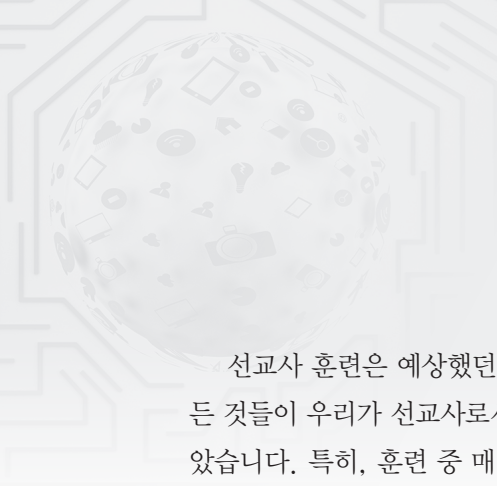
우리는 하나님의 “특공대”입니다.

● 전다윗 (32기 훈련생)

저는 25살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 계기는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한 뒤 부르심은 잠시 잊혀졌지만, 2021년 말에 사역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던 중에 다시 한번 ‘선교사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계선교훈련원에서 선교 훈련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급하게 선교 훈련 입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잠해질 것만 같았던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었던 코로나는 훈련이 시작됨과 동시에 저에게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3명 중 1명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상황 속에서 저 역시 훈련 첫 주를 격리를 하면서 참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며칠 간격으로 다른 훈련생 가정들도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와 온라인 병행훈련이 반복되었지만, 그럼에도 훈련이 도중에 멈추거나 막힘이 없이 진행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교 훈련에 입소하기 전 결혼을 약속했던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훈련을 받게 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훈련 전 기수를 통틀어서 “훈련 기간 중 처음으로 결혼하는 커플”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마음 한편엔 감사와 부담감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훈련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내용이 많아서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선교사로서 감당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며 매일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히, 훈련 중 매일 아침을 시작하는 QT는 제 안에 크게 자리매김을 하고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주어진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며 내용을 이해하기에 바빴는데, 점차 묵상을 통해 문장 하나, 단어 하나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의미를 찾게 되면서 말씀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훈련 강의는 선교사에 대한 선교 이론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재정 관리, 선교사의 자녀 양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접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필요를 공급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소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던 부분이 아무도 감독하지 않는 선교지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신하게 하는 ‘가장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목과 같이 우리는, 아니 나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특공대”입니다. 이 말은 이병문 부원장님께서 강의 중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교를 해야 하지만 아무나 그 일을 감당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히 편성되어 훈련된 자를 대표로 보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특공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뿐만 아닌 교회의 대표로 훈련되고 무장되어, 부르신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특공대로 살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주 선교 훈련 기간동안 ‘관계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는 32기 선교훈련생 가정들과 섬겨주시는 스텝들, 그리고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게 된 사랑하는 아내와 소중한 관계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통해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셨고,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귀한 의미를 제게 주셨습니다. 훈련 중 많은 강사님들의 강의들을 통해 어느샌가 선교사라는 정체성이 일깨워졌고, 가정의 행복을 알게 되었으며, 선교사가 지녀야 하는 기본 자질들에 대해 배우게 되었



습니다. 그리고 12주동안 있었던 훈련 시간들이 앞으로의 선교 사역의 큰 바탕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느리게 지나갈 것 같았던 12주라는 시간들은, 어느새 서로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흘러갔습니다. 9명으로 구성된 32기 훈련생들이지만, 인원이 적었던 만큼 함께 나누고 소통하며 한 공동체로, 소중한 동역자로서의 관계는 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생각하건데, 저희는 저희 앞에 펼쳐졌던 코로나 확산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 잘 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부르심 따라 나아간 선교지에서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누구보다도 그 역경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한 훈련의 모든 시간들이 앞으로의 선교 사역의 큰 밑받침이 되어 혼자가 아닌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로서 서로를 응원하는 32기 훈련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비롯한 사랑하는 WMTC 32기 훈련생 동기분들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귀한 만남을 통해 앞으로의 선교 사역에 있어 큰 힘과 자산을 얻은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도로 동역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매일매일을 함께하며 섬겨주신 존경하는 부원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실장님, 간사님들 모두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먼저 보여주시고 섬겨주신 헌신을 통해 무사히 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입소 전부터 저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로 기도해주신 사모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12주라는 시간이 너무나 든든했었고, 보람차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교회의 사명을 선교지에서 감당하는 “특공대”입니다.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32기 훈련생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2기 선교사 훈련생 소개 및 기도제목

● 김현 / 김윤주(하랑, 루하, 하린)



- 파송국가 : 체코
- 파송교회 : 범일침례교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10:31)

2012년 프랑스 유럽선교컨퍼런스에 참석하였을 당시 강사님들을 통해 유럽이 재복음화되어야 하는 선교지임을 깨닫게 하였고, 그곳에서 그 땅을 밟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훈련원에 들어오기 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골리앗과의 전쟁에 임하였던 다윗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제목

1.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해 우리 가정을 사용하소서.
2. 현지 문화와 언어에 잘 적응하고,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소서.
3.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은혜를 더하소서.
4. 한국에 계시는 양가 부모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 전다윗 / 이소희



- 파송국가 : 카자흐스탄
- 파송교회 : 세종샘교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많은 무슬림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카자흐스탄의 땅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달려갈 길 다가도록 주님께 쓰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기도제목

1.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2.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3. 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사 영적인 전쟁에서 늘 무너지지 않도록
4. 카자흐스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도록
5. 후원교회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 전상현 / 박아름(로이, 이레)



- 파송국가 : 대만
- 파송교회 : 노현교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행 26:17-18)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만!! 대만 원주민과 대만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 또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품고 복음을 증거 하는 증인으로 그들의 삶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빛으로,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 기도제목

1. 대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가정이 되도록
2. 선교사로서 합당한 영성과 인격이 준비되고 성령충만할 수 있도록
3. 자녀들이 현지 문화와 언어에 잘 적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4. 언어습득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 정회언



- 파송국가 : 카자흐스탄
- 파송교회 : 삼호교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다”(롬 1:16)

선교에 대한 마음으로 신학대학원에 입학했고, 졸업 후 부르심을 확인하고자 작년 한 해 잠비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교 훈련원으로 인도 해주셨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주님께서 한 걸음씩 나아갈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며 내려놓고, 순종하며 선교사로 잘 준비되길 기도합니다.

■ 기도제목

1. 선교사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2.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할 수 있도록
3. 만민의 축복과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4. 파송교회와 후원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 진수동 / 김민영(리, 환)



- 파송국가 : 스페인(안달루시아)
- 파송교회 : 꿈과 사랑의교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3)

스페인의 안달루시아는 북아프리카 무슬림들이 유럽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입니다. 또한, 20세기 중반 이후 아랍 세계는 과거 700여 년간(8세기-15세기) 안달루시아에서 꽃피웠던 이슬람 왕국의 회복을 꿈꾸고 있으며, 15세기 리콩케스타로 쫓겨났던 무슬림 후손들이 스페인으로 되돌아올 권리를 주장하며 귀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떨리고 부족하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그 땅 가운데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 기도제목

1.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 가족 모두에게 이루어 지기를
2. 그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기를
3.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게 하시고 순종하기를
4. 가는 곳마다 만민의 축복이 있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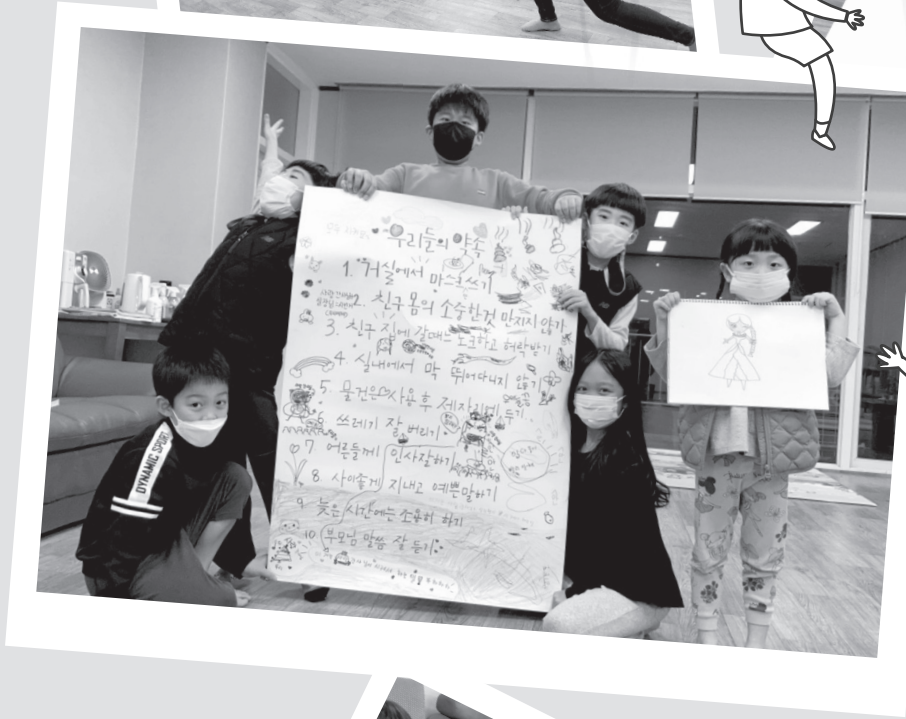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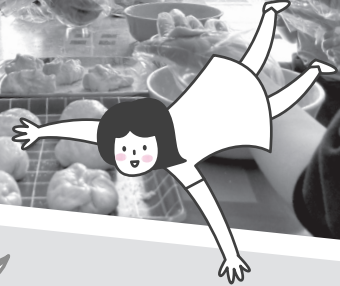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32기 훈련이야기





사진으로 보는 MK 이야기





선교에서 선교적 삶으로

■ 저 자 : 김용기 ■ 출판사 : 예영 커뮤니케이션
■ 발행일 : 2020년 11월 11일 ■ 페이지 : 총 264쪽

21세기는 또 다른 선교 시대로 접어들었다. 윌리엄 캐리의 '해안 선교 시대', 허드슨 테일러의 '내지 선교 시대', 랄프 윈터의 '미전도 종족 시대'를 지나 현대 선교가 맞이한 이 새로운 시대에서 2022년의 선교사들은 선교의 정의에 대하여 이전의 고정되어 있던 개념을 깨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시대적 분기점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을 다해 살아내고 보여 주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되고 이 시대가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선교적 삶'에 대해 주목한다. 이는 선교를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단지 전도와 교회 개척을 하는 등의 틀에 가두지 않고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흐르게 하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저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The Mission of God's People)'에서 하나님의 선교란 "모든 교회의 존재와 메시지는 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와 우주적 통치라는 온전한 복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세계와 영역에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저자는 이를 "이것은 선교 사명의 수행이 타문화 복음 전도에 머물지 않고 삶의 모든 것이 선교라는 통합적인 시야로 넓혀져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해석한다. 즉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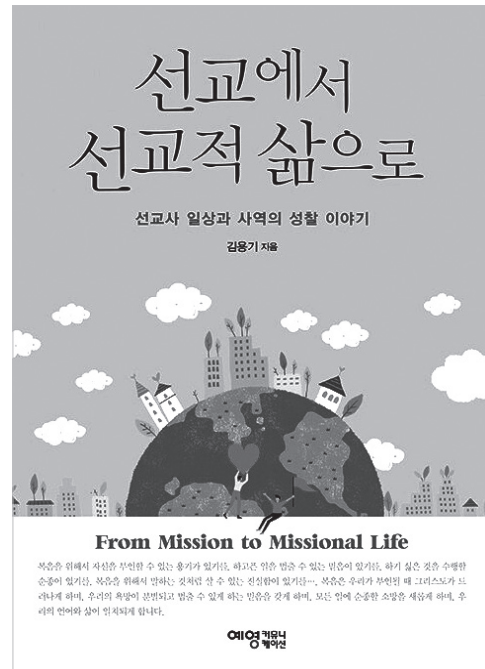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교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정의를 내리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역을 하기 이전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선교사가 자신의 그 마음

들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그 용기있는 걸음을 김용기 선교사는 본 저서를 통하여 걸어가고 있다.

“... 복음은 우리가 부인될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며, 복음은 우리의 욕망이 분별되고 멈출 수 있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며, 복음은 모든 일에 순종할 소망을 새롭게 하며, 복음은 우리의 언어와 삶이 일치되게 합니다.” < p.17 >

온전히 복음에 사로잡힌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슴 벅찬 일이다. 독자들은 본 저서를 통해 그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 더불어 복음에 시선을 고정하게 된 누군가에게 ‘선교’라는 단어는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저자도 “만약 복음이 강조된다면, 선교는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선교가 아닌, 복음이 강조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복음에 시선을 둔 선교적 삶은 우리에게 먼 훗날에 해도 되는 어떤 과제가 아닌, ‘지금’의 문제이다. 그리고 복음에 사로잡힌 한 선교사의 다양한 사역적 경험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생활인으로서의 모습은 지금 선교적 삶의 걸음을 가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작성자 : 명유정 간사(FMB)



2022년 하반기 기관별 사역 일정

침례교 해외선교회(FMB)

- 8월 - FMB 국내 MK 수련회
 - 인턴선교사 3기 훈련
- 9월 - APBF 10차 침례교 대회(한국)
 - 지부장 모임(WMTC)
- 10월 - FMB 선교포럼
- 12월 - 한교선 정기총회
 - 은퇴 선교사 감사예배

선교전략연구개발원(SRDC)

1. KWMC 대회 참석

- 1) 일시 : 7월 11일~14일
- 2) 참석자 : 이금주 원장과 문승호 연구원

2. Global Baptist Mission Networking, Samford University 참석

- 1) 날짜 : 7월 15일~16일
- 2) 장소 : 버밍햄 알라바마
- 3) 참석자 : 이금주 원장
- 4) 참고 : Fruitful Collaboration Initiative에 대해서 연설

3. SRDC 2022 전략회의

- 1) 날짜 : 9월 16일~29일
- 2) 참석자 : 원장, 부원장, 연구원



세계선교훈련원(WMTC)

■ 선교사 업그레이드 훈련(Missionary Up-grade Training)

	MUT- Professional	MUT-Senior
훈련기간	2022년 7월 11일~8월 12일(5주간)	2022년 10월 17일~11월 11일(4주간)
훈련대상	만 6~12년 차 현직 FMB 선교사(55세 미만)	55~65세 미만 현직 FMB 선교사
훈련내용	삶과 사역에 대한 평가, 사역 방향설정, 가정생활 등	삶과 사역에 대한 회고, 변화하는 세상과 선교 방법에 대한 고찰, 사역 이양과 정리, 선교사의 은퇴와 생활 적응 등

■ 인투미션 선교 교육(in2mission)

- 교회 방문 인투미션 : 지역교회를 방문하여 선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선교 교육 프로그램
 - 기간 : 9~11월(8~10주, 대면 방식, 기간은 교회와 협의 후 결정)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사역자 등
 - 진행 : 대면 강의 + 과제물
- 인투미션 웨비나 선교학 개론 : 이현모 교수의 전담 강의로 이루어진 온라인 선교이론 교육
 - 기간 : 9월~11월(매주 화요일, 12주)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신학생, 선교 관심자 및 헌신자, 사역자 등
 - 진행 : 온라인 강의 + 강의 소감문

■ 문의 : 침례교 해외선교회(02-2619-2202)



in2mission

인투미션 선교학교

1. 인투미션 선교학교란?

인투미션(in2mission)은 지역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 학교'입니다. 각 교회가 선교를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선교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적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현직 선교사 및 각계의 선교 전문가들의 다양한 강의를 통해 선교이론을 배우고, 생동감 넘치는 선교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눔으로써, 헌신된 선교 일꾼들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in2mission의 단어적 의미 지역교회와 평신도들이 선교(mission)에 투입(into)되도록 동원하는 선교학교로서, '선교에 빠지다. 선교에 잡기다. 선교 속으로'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숫자 '2'는 지역교회와 선교라는 두 개념을 의미하며, 인투미션 선교학교가 이 둘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2. 인투미션 진행안내

- 인투미션 : 지역교회를 방문하여 선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는 기초 선교 교육
 - 기간 : 8~10주(대면 방식, 기간은 교회와 협의 후 결정)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사역자 등
 - 진행 : 온라인 강의 + 과제물(독서 보고서 등)
- 인투미션 웨비나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기초 선교 이론 교육
 - 기간 : 매주 화요일, 8주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신학생, 선교 관심자 및 헌신자, 사역자 등
 - 진행 : 온라인 강의 + 과제물(강의 연구문제, 보고서)
- 인투미션 웨비나 선교학 개론 :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선교 이론교육(온라인)
 - 기간 : 매주 화요일, 12주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신학생, 선교 관심자 및 헌신자, 사역자 등
 - 진행 : 이현모 교수 전담 강의 + 강의 소감문
- 인투미션 선교위원 과정 : 선교위원 및 교회 내 선교 헌신자들을 위한 '선교 실무교육'
 - 기간 : 매주 화요일, 7주(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방식)
 - 대상 : 교회 선교위원, 교회 내 선교 헌신자, 사역자 등
 - 진행 : 강의 + 소그룹 활동

3. 수료 혜택

- 침례교 해외선교회(FMB)와 세계선교훈련원(WMTC) 공식 수료증 발부
 - 침례교 해외선교회 "인턴선교사" 자격 부여(6개월 ~ 1년)
 - 침례교 해외선교회 장단기 선교사 시취 시 1순위로 허입
- 문의 : 세계선교훈련원(WMTC) Tel. 042-828-3371

